

발 간 등 록 번 호

12-1371827-000018-01

www.clip.go.kr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20. 4. 9 ~ 2022. 4. 8

Presidential Commission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 발 간 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고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9일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는 정부 각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과 추진동력 확보에 힘썼습니다.

또한 제7기 위원회는 전국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중앙-지방간 도서관 정책·집행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발전정책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편되어 국가 도서관정책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통해 당당한 문화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공통된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주신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공직자들,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과 정부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목 차

## 제 1 장 ▶ 위원회 현황

제 1 절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	3
제 2 절 위원회 구성 .....	4
제 3 절 주요 기능과 역할 .....	6

## 제 2 장 ▶ 위원회 회의

제 1 절 전체회의 .....	9
1. 제 1 차 전체회의 .....	10
2. 제 2 차 전체회의(서면) .....	12
3. 제 3 차 전체회의(서면) .....	12
4. 제 4 차 전체회의(서면) .....	13
5. 제 5 차 전체회의(서면) .....	14
6. 제 6 차 전체회의(서면) .....	14
7. 제 7 차 전체회의(서면) .....	15
8. 제 8 차 전체회의 .....	16
9. 제 9 차 전체회의(서면) .....	17
제 2 절 소위원회 회의 .....	19
1.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 .....	19
2.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	21
3. 4 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	23
4.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	26
5.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	28
제 3 절 소위원장 회의 .....	32
1. 제 1 차 소위원장 회의(2020. 6. 18.) .....	32
2. 제 2 차 소위원장 회의(2020. 8. 28.) .....	33
3. 제 3 차 소위원장 회의(2021. 1. 15.) .....	33
4. 제 4 차 소위원장 회의(2021. 4. 29.) .....	34
5. 제 5 차 소위원장 회의(2021. 6. 17.) .....	34
6. 제 6 차 소위원장 회의(2021. 8. 27.) .....	35
7. 제 7 차 소위원장 회의(2022. 2. 15.) .....	35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b>제 4 절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회의</b> .....	<b>36</b>
1. 추진배경 .....	36
2. 추진경과 .....	36
3. 주요 내용 .....	36
<b>제 5 절 3 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b> .....	<b>38</b>
1. 추진배경 .....	38
2. 추진경과 .....	38
3. 성과 및 의의 .....	38
<b>제 3 장 ▶ 위원회 활동사항</b>	
<b>제 1 절 제 7 기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확정·발표</b> .....	<b>41</b>
1. 추진배경 .....	41
2. 추진경과 .....	41
3. 주요 내용 .....	42
4. 성과와 의의 .....	43
<b>제 2 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추진</b> .....	<b>44</b>
1. 추진배경 .....	44
2. 추진경과 .....	44
3. 평가대상 .....	45
4. 평가지표 .....	47
5. 평가방법 .....	48
<b>제 3 절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b> .....	<b>50</b>
1. 제 57 회 도서관주간 홍보 .....	50
2.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	53
<b>제 4 절 도서관계 현안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포럼 운영</b> .....	<b>57</b>
1. 제 1 차 도서관정책 포럼(2020. 9. 4.) .....	57
2. 제 2 차 도서관정책 포럼(2020. 11. 10.) .....	59
3. 제 3 차 도서관정책 포럼(2021. 9. 30.) .....	62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제 5 절 정책과제 공유 및 이슈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65**

- 1. 제 1 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0. 13.) ..... 65
- 2. 제 2 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1. 11.) ..... 67
- 3. 제 3 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2. 16.) ..... 68

**제 6 절 도서관계 국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71**

- 1. 추진배경 ..... 71
- 2. 주요 내용 ..... 71

**제 7 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 73**

부 록

- 1. 제 7 기 위촉위원 명단 ..... 81
-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 82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표 차례

표 1-2-1	제 7 기 위원회 위촉위원 .....	4
표 1-2-2	제 7 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5
표 2-1-1	제 7 기 위원회 전체회의 .....	9
표 2-2-1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 .....	19
표 2-2-2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정책과제 TF 회의 .....	20
표 2-2-3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	21
표 2-2-4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자문위원회 .....	22
표 2-2-5	제 7 기 위원회 4 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	23
표 2-2-6	제 7 기 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	26
표 2-2-7	제 7 기 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정책과제 TF 회의 .....	27
표 2-2-8	제 7 기 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	28
표 2-2-9	제 7 기 위원회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회의 .....	30
표 2-3-1	제 7 기 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	32
표 3-1-1	제 7 기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	42
표 3-2-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 년 시행계획 제출과제 현황 .....	46
표 3-2-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	47
표 3-2-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절차 .....	48
표 3-2-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 년 추진실적 평가위원단 .....	48
표 3-3-1	'제 57 회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세부 일정 .....	51
표 3-3-2	'제 57 회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51
표 3-3-3	'제 57 회 도서관주간' 조직(운영)위원회 위원 .....	52
표 3-3-4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추진 성과 .....	53
표 3-3-5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홍보 실적 .....	54
표 3-3-6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세부 일정 .....	55
표 3-3-7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수상작 .....	56
표 3-4-1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현황 .....	57
표 3-4-2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정책포럼 세부 일정 .....	58
표 3-4-3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정책포럼 세부 일정 .....	60
표 3-4-4	'남북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정책포럼 세부 일정 .....	62
표 3-5-1	제 7 기 위원회 도서관정책세미나 개최 현황 .....	65
표 3-5-2	제 1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	66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표 3-5-3	제 2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	67
표 3-5-4	제 3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	69
표 3-6-1	코로나 19 에 따른 세계 도서관계 동향 조사 .....	71
표 3-7-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 .....	73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그림 차례

그림 2-1-1 제 1 차 전체회의(2020. 5. 29.) ..... 11

그림 2-1-2 제 8 차 전체회의(2021. 12. 16.) ..... 17

그림 2-2-1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주요 회의 ..... 25

그림 3-4-1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정책포럼 실황 ..... 59

그림 3-4-2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정책포럼 실황 ..... 61

그림 3-4-3 '남북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정책포럼 실황 ..... 64

그림 3-5-1 제 1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66

그림 3-5-2 제 2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68

그림 3-5-3 제 3 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70

그림 3-7-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 75







**제1절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법정부 차원의 통합적 도서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가 공포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법 제12조)가 마련되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법 제14조)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제1기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다만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위원회가 발족한지 11년이 지난 2018년 11월 13일에 구성되었고, 2019년 10월 8일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07. 04. 0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도서관법」 제12조)
- '07. 05. 02. 도서관정책기획단 설치
- '07. 06. 12.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한상완)
- '09. 06. 12.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봉희)
- '11. 08. 01. 제3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봉희)
- '13. 12. 03. 제4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최은주)
- '16. 03. 01. 제5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신숙원)
- '18. 04. 09. 제6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신기남)
- '18. 11. 13. 위원회 사무기구(사무지원단) 구성
- '19. 10. 08. 위원회 사무기구(사무국) 설치(「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
- '20. 04. 09. 제7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신기남)

## 제2절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위원과 도서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뉜다.

2020년 4월 제7기 위원회 출범 당시 당연직위원은 11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었으며, 위촉위원은 도서관·독서·출판·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9명을 위촉하였다.(위촉위원 명단 표 1-2-1 참고)

위원회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5개의 소위원회인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를 두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는 <표 1-2-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2-1 제7기 위원회 위촉위원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신 기 남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제5·16·17·19대 국회의원	위원장
고 영 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곽 미 순	도서출판 한울림 대표	
김 영 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남 영 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노 영 희	간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 재 섭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손 애 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콘텐츠과 교수	소위원장
안 일 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 석 룰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	
이 상 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이 진 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 부장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이 현 주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 진 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현 양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최 상 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최 현 미	문화일보 편집국 문화부장	
한 혜 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 현 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표 1-2-2** 제7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
도서관서비스기획소위원회	이상복(소위원장), 이현주, 이진우, 최현미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손애경(소위원장), 김영일, 최상희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남영준(소위원장), 한혜영, 노영희, 곽미순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조현양(소위원장), 안일남, 오석륜, 홍현진
남북교류소위원회	고영만(소위원장), 박재섭, 정진근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이 겸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상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업무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가 규정되어, 도서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제3절 주요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서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서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도서관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도서관법」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

## 2 장 위원회 회의

---

- 제 1 절 전체회의
- 제 2 절 소위원회 회의
- 제 3 절 소위원장 회의
- 제 4 절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회의
- 제 5 절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 02

## 위원회 회의

## 제1절 전체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9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일자와 상정안건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제7기 위원회 전체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5. 29.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2020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안</li> <li>· (심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li> <li>· (보고)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li> <li>· (보고) 「도서관법」 개정사항 보고</li> <li>·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계획안</li> <li>· (보고)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시행계획</li> </ul>
제2차	2020. 9. 9.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li> <li>· (보고)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황</li> <li>· (보고) 202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계획안</li> <li>· (보고)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명칭변경안</li> </ul>
제3차	2020. 11. 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li> <li>· (보고) 「도서관정책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계획안</li> </ul>
제4차	2020. 12. 21.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li> <li>· (심의) 2021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li> <li>· (보고) 2020년도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현황</li> <li>· (보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도 국방부 추진실적</li> <li>· (보고) 2020년도 교도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안</li> </ul>
제5차	2021. 2. 2.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202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li> <li>· (보고) 2021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li> </ul>
제6차	2021. 5. 27.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li> <li>· (보고)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계획</li> <li>· (보고)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li> </ul>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7차	2021. 9. 1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li> <li>· (보고)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추진계획안</li> <li>· (보고)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추진 경과</li> </ul>
제8차	2021. 12. 16.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li> <li>· (심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평가계획안</li> <li>· (보고)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현황</li> </ul>
제9차	2022. 3. 2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li> <li>· (보고)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li> <li>· (보고)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li> </ul>

## 1. 제1차 전체회의

제7기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2020년 5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촉직 위원과 5명의 당연직 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총 2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안 심의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보고
- 「도서관법」 개정사항 보고
-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계획안 보고
-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

회의 결과 2개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2020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안」에 대하여는 코로나 19로 인한 정책 환경변화로 단위도서관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평가지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은 위원회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어서 보고 안건으로 최신 도서관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제7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 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계획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시행계획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그림 2-1-1 제1차 전체회의(2020. 5. 29.)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과 신기남 위원장



## 2. 제2차 전체회의(서면)

제2차 전체회의는 2020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8명과 당연직 위원 10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심의
-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황 보고
- 202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계획안 보고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명칭변경안 보고

심의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시·도는 시행계획 수립 시 시·군·구의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고 안건인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삭제된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조항을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향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3. 제3차 전체회의(서면)

제3차 전체회의는 2020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제3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 「도서관정책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계획안 보고

심의 안건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동 규정의 존속기한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무국 별도정원 승인 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보고 안건인 「도서관정책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계획안은 2020년 11월 10일 개최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주한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포럼에 대한 계획으로서 별도 의견은 없었다.

#### 4. 제4차 전체회의(서면)

제4차 전체회의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7명과 당연직 위원 10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제4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2021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 심의
- 2020년도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현황 보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도 국방부 추진실적 보고
- 2020년도 교도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

첫 번째 심의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를 대비한 온라인 프로그램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2021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면 서비스 관련 지표와 소규모 도서관에 불리한 일부 지표를 축소·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보고 안건으로는 교육부의 「2020년도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현황」, 국방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도 국방부 추진실적」, 법무부의 「2020년도 교도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안」이 상정되었다.

## 5. 제5차 전체회의(서면)

제5차 전체회의는 2021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8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제5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 심의
- 2021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 보고

심의 안건인 「202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은 기존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을 정성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표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보고 안건인 「2021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은 현안 중심의 정책발굴을 위한 회의체 운영 활성화, 중앙·지방 간 도서관정책 협력 강화, 남북 및 국제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다.

## 6. 제6차 전체회의(서면)

제6차 전체회의는 2021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제6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보고 안건만 상정되었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보고



-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 보고

첫 번째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제출한 2020년 추진실적을 종합한 것으로 당초 2021년 시행계획 목표대비 92.2%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정책은 축소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안건인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은 위원회가 권역별 정기회의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 번째 안건인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개발 연구,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등 총 4개의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7. 제7차 전체회의(서면)

제7차 전체회의는 2021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제7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심의
-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추진계획안 보고
-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추진 경과 보고

심의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인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은 위원회 주관으로는 처음 개최하는 대국민 문화행사로 도서관 정책 관련 공모전 및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도서관 정책포

럼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으로 별도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인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추진 경과」는 제6차 전체회의 시 보고한 정책연구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다.

## 8. 제8차 전체회의

제8차 전체회의는 2021년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촉직 위원과 6명의 당연직 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2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제7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심의
-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현황 보고

첫 번째 심의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36개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은 2020년 6월 9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2022년부터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지표 등 평가체제안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보고 안건은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현황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변경되고,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2월 8일로 보고되었다.

그림 2-1-2 제8차 전체회의(2021. 12. 16.)



의사봉 두드리는 신기남 위원장



## 9. 제9차 전체회의(서면)

제9차 전체회의는 2022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 7명 등 총 19명이 참여하였다.

제9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보고 안건만 상정되었다.

-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 보고

-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 보고
-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보고

첫 번째 안건인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은 제8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조기 수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본격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인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은 제7기 위원회 제안과제와 관계부처·현장 수요 등을 종합 검토 후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전문가 TF 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안건인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은 지난 2021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주로 남북관계 경색기에 준비해야 할 사업과 화해 협력기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제2절 소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3조 제8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각 분과(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각각 지명하고 분과 간의 원활한 의견소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위원장 주재로 소위원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1.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4회의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1>와 같다.

표 2-2-1 제7기 위원회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7. 23.	위원회 회의실	· 제7기 전략기획소위원회 중점 논의 의제 선정 · 소위원장 회의 논의사항 공유
제2차	2020. 8. 28.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방안 논의
제3차	2021. 2. 09.	위원회 회의실	· '21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업무계획 논의 · '21년도 전략기획소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전략기획소위원회 정책과제 TF 구성 및 활동 계획 논의
제4차	2022. 1. 26.	위원회 회의실	· '21년도 전략기획소위원회 추진 성과 공유 · '22년도 도서관 정책 신규 과제 발굴 및 논의

제1차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2020. 7. 23.)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발전을 위한 한국형 뉴딜 관련 도서관 의제 탐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북교류소위원회의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와의 공동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제7기 위원회 추진전략 등에 담긴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철학이 담긴 도서관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2020. 8. 28.)는 남북교류소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였으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과 남한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도서관계 남북교류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행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 등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방안」 상 제안 사업들의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차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2021. 2. 9.)에서는 2021년도 위원회 업무계획과 소위원장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도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도에 논의해야 할 중점 과제로 3가지 정책과제를 선정(①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② 도서관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체계 연구, ③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전문 TF)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 TF 구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과제 연구와 관련 활동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관중·소위별 이슈 포럼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차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2022. 1. 26.)에서는 '21년도 소위원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3개의 정책과제 TF를 각각 구성하여 총 17회의 정책과제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과제별 이슈페이퍼 발간과 총 2차례의 도서관정책세미나를 통해 정책과제 TF 결과물을 홍보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22년도 도서관 신규 정책과제로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와 「사서교사 양성체제 방안」 정책과제 TF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제4차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서교사 양성체제 방안」 TF를 구성하였으며, 총 6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사서교사 양성체제 방안 연구」를 발간하였다.

**표 2-2-2** 제7기 위원회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정책과제 TF 회의

정책과제명	회의실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전문 TF (2021)	1차 회의(4.14.), 2차 회의(8.19.) 3차 회의(8.26.), 4차 회의(9.28.)
도서관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체계 연구 (2021)	1차 회의(4.20.), 2차 회의(5.21.) 3차 회의(6.26.), 4차 회의(9.7.) 5차 회의(9.25.), 6차 회의(11.29.)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2021)	1차 회의(4.1.), 2차 회의(4.30.), 3차 회의(5.21.), 4차 회의(6.25.), 5차 회의(7.29.), 6차 회의(8.9.), 7차 회의(8.25.)
사서교사 양성체제 방안 (2022)	1차 회의(2.22.), 2차 회의(3.1.) 3차 회의(3.12.), 4차 회의(3.19.) 5차 회의(3.25.), 6차 회의(3.31.)

## 2.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5회의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제7기 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8. 5.	위원회 회의실	· 소위원회 운영 방향 및 도서관 법제 현안 공유 등
제2차	2020. 9. 4.	서면	· 위원별 관심과제 공유 및 추진방안 논의
제3차	2020. 10. 8.	위원회 회의실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1차)
제4차	2020. 11. 6.	위원회 회의실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2차)
제5차	2021. 3. 19.	위원회 회의실	· 장애인도서관 관련 법제 개선안 논의검토 · 온라인 납본 관련 이슈페이퍼 추진 공유

제1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20. 8. 5.)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도서관 법제 현안을 공유하였다. 제7기 소위원회는 도서관 관계 법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 운영 등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 추진현황과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국회 계류 중인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도중환의원발의, '20.7.21.)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의 협력으로 위원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자격증 위탁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TF'를 추진 중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별도 TF 운영보다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자고 논의되었다.

제2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20. 9. 4.)에서는 위원별 관심과제를 선정하고 제7기 위원회 기간 중 해당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효율적 논의 추진을 위해 과제와 관련된 소관부처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는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작성 후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위원별 관심과제는 ① 온라인 자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장애인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안, ③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정책 수립과정 점검 및 추진체계 개선안이다.

제3차 회의(2020. 10. 8.)와 제4차 회의(2020. 9. 4.)에서는 위원별 관심과제 ① 온라인 자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과 자문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발제자(최장) 제안사항: 온라인자료 납본 제도상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무보상 원칙, 납본제의 자료 중 보존가치 자료 선별 선정, 납본보상금 단가 조정 등 3개 안을 제시  
\* 납본 목적성에 적합한 납본자료 여부, 납본보상금 지급단가 적절성 문제 등
- 참석자 종합의견: 무보상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내 이용(열람용 납본자료)에 대한 해석과 납본자료에 대한 보안 신뢰성 부분은 의견 차이 존재
- 위원회 검토의견: 위원 간 의견 차이(쟁점)의 해소가 전제되지 않고 무보상 등 온라인 납본제도의 개선은 어려움. 방법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계와 논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동 회의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참고자료인 이슈페이퍼를 작성·배포하도록 하겠음

**표 2-2-4** 제7기 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손 애 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법·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최장
2	김 영 일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법·제도개선소위원회)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3	최 상 희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법·제도개선소위원회)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4	곽 미 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 도서출판 한울림 대표	
5	김 환 철	·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 문피아 대표	
6	이 근 미	·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 위원장 · 이다버스 대표	
7	이 은 호	· 한국전자출판학회 부회장 / 한국출판학회 이사 · 교보문고 차장	
8	이 건 응	· 차이나미디어 대표 · 콘텐츠문화학회 회장	
9	한 주 리	· 한국전자출판학회 부회장 · 서울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0	한 건 희	· 자기출판플랫폼 부크크 대표	
11	홍 영 미	·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온라인 자료 수집 총괄)	
12	이 용 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간사

제5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21. 3. 19.)에서는 장애인도서관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방향 검토와 온라인 납본 관련 이슈페이퍼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도서관법 개정(2019.12.3., 법률 제16685호, 시행 2020.6.4.)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지만 직제 개정 및 독립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한 도서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소관부처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납본 관련 이슈페이퍼 추진현황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이슈페이퍼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자 FGI 및 설문조사를 계획 중에 있음을 공유하고 최종안을 포함한 작성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3.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5>과 같다.

**표 2-2-5** 제7기 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8. 6.	위원회 회의실	·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회 활동사항 도출
제2차	2020. 11. 24.	온나라 PC영상회의	· 2021년 위원회 예산편성 계획안 검토
제3차	2021. 3. 26.	위원회 회의실	· 2021년 소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논의
제4차	2021. 7. 8.	위원회 회의실	·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용역사업 착수보고회
제5차	2021. 10. 27.	위원회 회의실	·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결과 논의
제6차	2022. 1. 17.	위원회 회의실	· 2022년 소위원회 추진 정책과제 논의

제1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0. 8. 6.)는 새롭게 출범한 제7기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4차산업혁명적용 관련 도서관 사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작은도서관의 URL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그 밖에 차세대 DLS 구축 사업을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데이터 시대에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를 기획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0. 11. 24.)에서는 2021년 위원회 예산편성 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2021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였다.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 맞춰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4차산업혁명적용 도서관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추가로 지난 제2차 소위원장 회의(2020. 8. 28.) 결과를 공유하였다.

제3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1. 3. 26.)에서는 2021년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소관 사업이 논의되었다. 특히,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의 범위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미래형 도서관 모델 제시, 미래형 도서관 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정의, 단계별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규정 정리 등으로 확정하였다. 앞선 2차 회의 때 논의되었던 4차산업혁명적용 도서관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되었다.

제4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1. 7. 8.)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미래도서관 관련 실시하는 설문 조사 시 소위원회 구성원 또는 경험 많은 사서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책입안자 의견 청취 시 도서관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사를 선별하여 수행할 것과 도서관의 공간 측면 연구 시 가상적 공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외 향후 위원회 차원의 포럼 진행 시 4차산업혁명적용 분야 세션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림 2-2-1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주요 회의



착수보고회(왼쪽) 및 최종보고회(오른쪽)

제5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1. 10. 27.)에서는 지난 제5차 소위원장 회의(2021. 8. 27.) 결과를 공유하고,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용역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주요 의견으로는 세계 각국의 도서관 현황 및 국내 도서관을 조사하여 내용이 알차다는 의견, 도서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 등이었다. 그 밖에 향후 국민맞춤형 미래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세미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6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22. 1. 17.)에서는 2022년 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른 소위원회별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활동 강화 계획안과 전문가 활용 현장 중심 정책과제 발굴 계획안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할지, 중·장기적인 주제인 경우 8기 위원회에 인계 필요성이 있는 과제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그 밖에 향후 위원회 7기 성과보고서 작성 시 소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 4.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7회의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6>와 같다.

**표 2-2-6** 제7기 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07. 16.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기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li> <li>· '20년도 소위원회 주요 사업계획</li> </ul>
제2차	2020. 10. 30.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정책과제 선정 및 TF팀 구성 논의</li> </ul>
제3차	2021. 02. 04.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소위원장 회의 사항 공유</li> <li>· '21년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회의체 운영비 예산 내역보고</li> <li>· 위원별 정책과제 및 TF구성 명단 제안발표, 소위원회 정책과제 선정 및 TF구성 방안 논의</li> </ul>
제4차	2021. 03. 17.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이해와 인식전환 과제</li> <li>·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추진 TF활동에 대한 결과물 도출의 목적 및 필요성 논의</li> <li>· 농인전문도서관 설립 추진 TF연구보고서 진행 일정 및 방안</li> </ul>
제5차	2021. 09. 16.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인전문도서관 설립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검토</li> </ul>
제6차	2021. 11. 04.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추진 TF 과제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검토</li> </ul>
제7차	2022. 01. 27.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추진성과보고 및 제8기 위원회 정책과제 제안</li> </ul>

제1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0. 7. 16.)에서는 5,6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인전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인문학진흥사업의 연계성 검토, 도서관의 특성화사업에 대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0. 10. 30.)에서는 제7기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가 추진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식정보격차에 대한 현황조사, 농인전문도서관 설립방안, 인문학진흥사업의 농어촌 및 병영도서관과의 접목방안, 특화도서관 기준 마련을 위한 컨설팅 그룹 제안 등의 의견을 공유하였고 과제별 간략보고서 검토 후 최종 정책과제와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제3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1. 2. 4.)에서는 제3차 소위원장 회의 결과와 2021년도 소위원회 회의체 운영비 예산 계획을 공유하였고, 소위원회에서 진행할 정책과제와

TF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F구성을 위해 위원별로 제안한 정책과제와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공유하고, 제안된 과제 중 ‘국가차원의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을 최종 선정하여 전문가 6인 내외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제4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1. 3. 17.)는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추진 TF」 1차 회의를 겸하여 진행되었으며, 농인전문도서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TF연구진 구성과 연구보고서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1. 9. 16.)는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추진 TF」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공유하고, 농인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 정책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차 소위원장 회의(2021. 4. 29.)에서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TF로 추가 진행하기로 의결된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TF」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였다.

제6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21. 11. 4.)는 2021년에 추진한 2개 TF-농인전문도서관 설립추진 TF,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TF-의 연구과제보고서를 최종 점검하고 도서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과제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7차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회의(2022. 1. 27.)는 2021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제8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7기 위원회의 정책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을 위해 과제로 ①농인도서관 건립추진 후속과제 논의, ②정보불평등 측정지표 개발연구, ③도서관 연계 인문학 활성화 정책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표 2-2-7** 제7기 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정책과제 TF 회의

구분	회의실시
농인전문도서관 설립 추진 TF (2021)	1차 회의(3.17.), 2차 회의(4.22.), 3차 회의(6.24.), 4차 회의(7.29.), 5차 회의(9.16.), 6차 회의(11.4.)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TF (2021)	1차 회의(5.31.), 2차 회의(7.15.) 3차 회의(8.20.), 4차 회의(10.5.)

## 5.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9회의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8>과 같다.

**표 2-2-8** 제7기 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07. 07.	영상회의	· 남북교류소위원회 운영방안 및 한안 검토
제2차	2021. 01. 27.	영상회의	· 2021년도 소위 운영 및 정책연구 등 추진 관련 논의
제3차	2021. 04. 21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차	2021. 05. 11.	홍린 판문점	· 남북도서관정책포럼 개최 논의 및 판문점 특별견학
제5차	2021. 06. 18.	위원회 회의실	· 남북도서관정책포럼 진행상황논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
제6차	2021. 10. 08.	위원회 회의실	· 남북도서관정책포럼 결과보고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7차	2021. 11. 26.	위원회 회의실	· 남북교류·협력 정책용역 최종보고 및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수립 논의
제8차	2022. 02. 10.	영상회의	·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검토 및 향후 소위 운영논의
제9차	2022. 03. 15.	영상회의	·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최종안 검토

제1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0. 7. 7.)에서는 소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소위원회 안건과 과제에 대한 논의 등 제7기 임기 중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7기 위원회 구성 초기 소위원회 명칭은 “현장소통·남북교류”로 하였으나 소위원회 명칭에 따른 업무범위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후 전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소통에 대한 건은 개별 소위와 안전별로 진행하기로 하고, 명칭을 “남북교류소위원회”로 하여 “남북 교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북한과의 대면접촉·방문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남북교류 관련 도서관 의제발굴을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0년도 하반기 중 남북도서관 교류 협력을 주제로 도서관 정책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을 주제로 2020년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2020. 11. 10.)을 추진하였다.

2020년 9월 4일 남북교류소위원회는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방안” 마련을 주제로 전략 기획 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의 위반 없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정책 및 정책추진에 있어 남한 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주제 발

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사업 내용 정교화, 정책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도서관 및 남북교류 관련 민관합동 특별전담반을 구성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특별전담반에는 위원회,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및 북한관련 연구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제2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1. 27.)에서는 제7기 위원회 제3차 소위원장회의(2021. 1. 15.) 논의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 남북교류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추진과제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과제의 중요 내용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며, 그 내용에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에 이어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도서관정책포럼을 개최하되, 통일교육 또는 지역대표도서관의 통일 장서 구축, 통일 이후 정서적 통합, 독일사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2021년 9월 추진하고자 하였다. 전년도 전략기획소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남북교류관련 민관합동 특별전담반과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남북교류 관련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4. 21.)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가 함께 모였다. 도서관위원회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도서관계 남북 교류 현황 및 제3차 계획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위원회 정책 연구용역을 비롯한 도서관계 남북교류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수행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회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제7기 위원회 전략 추진 계획에서 미래 남북한 도서관 통합을 위한 도서관계의 대응 전략 및 교류·협력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서관위원회 남북교류 소위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을 마련코자 구성되었으며, 남북사회·문화교류 및 도서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하여 제7기 위원회 임기 만료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2-9 제7기 위원회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회의**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 병 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분야 연구자
2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3	정 은 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4	송 승 섭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한국도서관협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도서관계
5	이 경 속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6	이 정 수	서울도서관장	
7	이 현 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장	관련단체 및 기관
8	김 기 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9	이 시 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 사무차장	
10	이 현 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전문위원	
11	정 창 현	머니투데이 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장/사학자	

제4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5. 11.)에서는 2021년도 남북도서관정책포럼 개최에 대한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주한독일문화원과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제 및 발표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소위원회에서 포럼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포럼에 좌장과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일 회의 이후 통일부 주관으로 통일대교→판문점 JSA 경비대대 → 자유의 집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 공동기념식수장소 → 도보다리 → 장명기 상병 추모비 등을 참관하는 일정으로 판문점 특별견학을 진행하였다.

제5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6. 18.)에서는 남북도서관 정책포럼의 주제로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제안한 “Towards a Unified Library Network(남북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지향)”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기초강연자로 이우영 교수를 선정하였다.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조현성 연구위원)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착수보고회의가 잇달아 진행되었다. 연구용역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향후 남북교류소위원회에서 연구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하였다.

제6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10. 8.)에서는 9월 30일 진행된 남북도서관정책포럼에 대한 추진결과를 공유하였다. 고영만 소위원장이 좌장으로 박재섭, 정진근 위원이 토론자



로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최소한의 관계자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증계로 진행되었다. 행사 이후 10일간 누적조회수 536회로(~'21. 10. 8.) 남북교류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한 장으로서 포럼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북교류·협력 정책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이 요구되었으며, 남북 교류·협력 준비단계에서 도서관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완, 제4차 종합계획 수립시 남북 교류 분야 작성 기초 자료 활용가능 하도록 작성 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제7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1. 11. 26.)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로 진행되었다. 도서관계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중요성과 도서관 차원에서의 교류의 고민은 결국 이용자(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며,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요도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를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여 도서관계 남북 교류 추진계획(안)을 도출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8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22. 2. 10.)에서는 2022년 4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을 검토하였다.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은 도서관이 여는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남한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남북 도서관 교류 협력 사업진행,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분야 연계 등 3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3월 중 완료하고 소위 9차 회의에서 최종 정리·제7기 마지막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무국을 통하여 제8기 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 제3절 소위원장 회의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7회의 소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제7기 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0. 6. 18.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요사업 계획</li> <li>· 제7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li> </ul>
제2차	2020. 8. 28.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기 소위원회별 활동 경과</li> <li>· 제2차 전체회의 심의안건 검토</li> <li>· 위원회 및 소위원회 향후 계획</li> </ul>
제3차	2021. 1. 15.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li> <li>· 제7기 제5차 전체회의 개최계획(안)</li> <li>· 위원장 특별상 선정절차 개선 계획(안)</li> </ul>
제4차	2021. 4. 29.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소위원회별 정책과제 추진계획</li> <li>·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회의 제차 실무협의회 회의 논의 결과</li> </ul>
제5차	2021. 6. 17.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li> </ul>
제6차	2021. 8. 27.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소위원회별 정책과제 추진상황</li> <li>· 제7차 전체회의 심의안건 사전 검토</li> </ul>
제7차	2022. 2. 15.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소위원회별 추진계획</li> <li>· 제8차 전체회의 안건 사전 검토</li> </ul>

### 1. 제1차 소위원장 회의(2020. 6. 18.)

제1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2020년도 위원회 주요사업계획 중 특히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추진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서관법상 지자체별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위원회가 이를 체계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도서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도서관법 시행령에 있는 '실무조정회의'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7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일선 도서관에서 위원회 역할과 존재 여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제2차 소위원장 회의(2020. 8. 28.)

제2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제7기 소위원회별 추진 활동의 공유와 함께 운영 방향이 논의되었다. 각 소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TF 구성은 그 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2021년 증액될 예산에 맞춰 소위별 신규 사업 구상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하반기에 정책포럼 행사 추진
-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서관계 의견수렴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회의 개최 필요
-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는 공모전 개최 및 자료집 제작·배포 등 논의
-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을 위한 TF 운영 예정
- 남북교류소위원회: 하반기 정책포럼시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도서관정책 관련 발표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민원 해결과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현장소통·남북교류 소위원회’에 국한하기 보다는 각 소위별에서 직접 현장 소통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소위원회 명칭을 ‘남북교류 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제3차 소위원장 회의(2021. 1. 15.)

제3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2021년도 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제7기 제5차 전체회의 개최계획안, 위원장 특별상 선정절차 개선 계획안이 논의되었다. 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전문가들을 관중별(대학, 학교, 공공, 전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관중별 현장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으로 수립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처리절차 마련과 함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소위원회별로 완료된 정책과제의 결과물을 단독 또는 병합 발행 여부 등의 발간 방식, 발행 횟수, 편집 방향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4. 제4차 소위원장 회의(2021. 4. 29.)

제4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2021년 소위원회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계획과 TF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3개 TF 운영(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체계)
-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3개 과제 운영(온라인자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안, 장애인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안,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안)
-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
-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2개 TF 운영(농인전문도서관 설립,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 남북교류소위원회: 남북도서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9월에 도서관정책포럼을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시대적 과제인 통일에 대한 도서관계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서관의 역할 제고를 포괄하는 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사전에 조기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한 광역단위의 도서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정책팀(과)이 있는 본청과 지역대표도서관 간 역할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서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표준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5. 제5차 소위원장 회의(2021. 6. 17.)

제5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정책연구과제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

## 6. 제6차 소위원장 회의(2021. 8. 27.)

제6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별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2021년 10월 13일, 온라인) 세미나와 도서관정책포럼(11월)을 개최·발표하기로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전국도서관대회(3개 발표): 도서관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체계, 공공도서관 리모텔링,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강화방안 연구
- 도서관정책포럼(2개 발표):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농인도서관 설립 추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및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로 기획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 공모전·해커톤·포럼’에 대해 의논하였다.

## 7. 제7차 소위원장 회의(2022. 2. 15.)

제7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2022년도 소위원회별 추진계획인 정책연구용역 및 TF 과제가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 도서관전략기획소위원회: 공공도서관을 위한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사서교사 양성체계 방안 연구 TF
-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도서관정책체계 정립을 위한 단위도서관 정책기능 개선방향
-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TF 과제 발굴 및 정책세미나 개최(11월)
-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2개 정책연구용역 제안(정보불평등 측정지표 개발, 도서관 연계 인문학 활성화), 3개 TF 제안(농인전문도서관 건립, 장애인 관련 자료집,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방안)
- 남북교류소위원회: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제9차 전체회의는 코로나19와 제7기 해단식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행정부처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협의체인 ‘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제4절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회의

### 1. 추진배경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정책에 대한 협의와 법·제도 개선 건의 등 도서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신기남 위원장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발족한 이 협의회는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서관법 제12조와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구성 운영하고 있다.

### 2. 추진경과

2020년 3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안을 마련한 후 4월에 광역자치단체에 협의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5월 29일에 개최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의회 운영 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예규 제4호’로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 3. 주요 내용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는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두 차례 개최하였다. 협의회 정기회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개최를 연기하다가 2021년 6월 29일 충남도청에서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서관법상 구성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각 광역부단체장과 국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모여 중앙과 지방 간 도서관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지역 단위 우수 정책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는 각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 간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그 동안 느슨했던 중앙과 지방간 정책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우수한 도서관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잘

시행되게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 근거에 따른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법제적 진단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운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광역도서관위원회(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 제5절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 1. 추진배경

위원장과 3부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장이 만나 국가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논의하고, 도서관 간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로 제1기 위원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2. 추진경과

제7기 위원회 기간 국립도서관장과의 간담회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총 3회가 개최되었으며, 도서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 3. 성과 및 의의

간담회에는 각 기관의 기관장 뿐 아니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도서관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홍보와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전년도에 비해 간담회 회차가 대폭 축소되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차기 위원회 기간엔 좀 더 자주 소통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 성과가 실제 정책의 추진에도 연계될 수 있기를 함께 희망하는 시간이 되었다.



---

# 3 장 위원회 활동사항

---

- 제 1 절 제 7 기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확정 ■표
- 제 2 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추진
- 제 3 절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제 4 절 도서관계 현안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포럼 운영
- 제 5 절 정책과제 공유 및 이슈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제 6 절 도서관계 국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제 7 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제1절 제7기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확정·발표****1. 추진배경**

제6기 위원회는 2019년 10월말, 위원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잔여임기 내 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세부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2년이라는 임기가 그리 긴 기간이 아니며, 위원회는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므로 도서관계 현안을 기반으로 7기 위원회가 빠르게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임 위원회 활동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제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전담반인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였다. 위원회의 주요 현안, 향후 추진과제 및 안건 발굴, 위원회의 외연확장 방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안)”으로 제6기 위원회 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2019년 12월 18일 제6기 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후, 제7기 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추진경과**

제6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안)”은 제7기 위원회 구성 이후, 새롭게 선임된 위원들에게 공유되었다. 이후 충분한 검토와 위원들의 의견수렴·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아미홀에서 개최된 제7기 위원회 위촉식에서 제7기 위원회의 전략 및 실행과제로 발표되었다.

### 3. 주요 내용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는 전체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제7기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도서관 발전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이 절실한 사회</li> <li>· 참여와 거버넌스 국민주권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과제</li> <li>· 변화가 필요한 도서관과 도서관 정책</li> </ul>
제2장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정책 체계의 구축</li> <li>·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li> <li>· 유관 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li> </ul>
제3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정립</li> <li>· 도서관 정책 환경 구축 및 정책 개발</li> </ul>
제4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실행</li> <li>· 도서관 정책 홍보 사업 활성화</li> <li>· 법적·제도적 추진과제</li> <li>· 평화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의 준비</li> <li>·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기반 혁신방안 모색</li> <li>· 도서관 핵심 정책 이슈 제안</li> <li>·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안</li> </ul>

제1장 도서관 발전 비전은 현실의 변화 속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과제에서는 도서관 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 부처, 전 도서관, 유관기관 간의 도서관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 위원회 전략과제는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도서관 정책 환경의 구축과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제안하였다.

제4장 위원회 실행과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적극적 실행, 도서관 정책 홍보 사업 활성화, 법적·제도적 추진과제,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 준비,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기반 혁신방안 모색, 도서관 핵심정책 이슈 제안, 위원회 구성 제안 등으로,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제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 4. 성과와 의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는 전임 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제7기 위원회의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되었다. 제6기 위원회는 도서관 현장 및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도서관 정책 의제 개발 및 공유 확산을 목적으로 도서관계 주요 현안과제를 제시하고 대정부 도서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힘 있는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정책제안은 도서관법 제12조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를 근거로 하였다. 도서관법 제12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의 수립·심의·조정이라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계의 협력을 기반으로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하여 전체 도서관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견인하는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핵심정책과제] 4-2. 도서관협력체계 강화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하여 도서관정책포럼, 도서관정책세미나, 그 외 도서관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각종 TF 활동과 논의, 도서관 유관기관들 및 단체들과의 협력 등은 제7기 위원회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서관 현안을 중심으로 “전략 및 실행과제”를 기반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제2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추진

### 1. 추진배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도서관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처와 시·도가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위원장이 매년 종합하여 평가하는 법정 정책평가이다.

평가의 목적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현장 안착을 위해 부처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등의 환류이다. 이에 부처 및 시·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위원장은 「도서관법」 제46조의3에 따라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추진개요는 다음과 같다.

- 평가 주관기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최초 평가 시작년도: 2022년
- 평가 근거: 도서관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2020.6.9., 신설)
- 평가 시기: 매년 1월 ~ 9월, 결과 발표 9월 30일
- 평가 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 평가 단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주요 시책
- 평가 유형: 총괄평가(사업 종료 후 목표 달성수준에 대한 평가)
- 평가 실적기준일: 전년도 1년간 실적(1.1.~12.31.)
- 결과 환류: 우수정책 포상 및 홍보,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보고, 컨설팅 제공 등

### 2. 추진경과

위원장은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에 기반한 평가지표 등 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21.12.16.)를 거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간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정책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신설**
  -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각 부처 및 시·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20.6.9.)
- **평가 대상기관 사전 안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제출 요청('20.9.28.)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출 요청('21.9.30.)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통보('21.12.30.)
- **평가지표 등 평가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21.7~10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용) 추진실적 평가의 이론적 근거 마련, 법정 기본계획 관련 정책평가 분석,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등 체계안 마련
  - (범위)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관계자 설문조사 등 의견조회,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기관 의견조회 및 설명회 개최**
  - 2021년 추진실적 평가지표 등 계획(안) 의견조회('21.10.29.~11.12.)
  - 2021년 추진실적 평가지표 등 계획(안) 설명회('21.11.30.)
-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위원회 심의·의결('21.12.16.)**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부터 매년 정책평가 실시('22년~)

### 3. 평가대상

추진실적 평가는 각 부처 및 시·도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평가 대상기관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평가 대상기관 : 총 40개 기관**
  - (선정기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제출기관
  - (대상기관) 23개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도서관 포함), 17개 광역자치단체
  - \*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가나다 순)
- **2022년도 평가 대상과제 : 총 407개 과제 (중앙 72, 시도 335)**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제시된 36개 추진과제 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가 2021.1.1.~12.31.까지 수행한 과제

**표 3-2-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제출과제 현황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평가 대상과제		
			총계	중앙	시·도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21	4	17
		·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19	2	17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17	1	16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19	2	17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13	0	13
		·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15	1	14
		·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3	0	3
		·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17	1	16
		·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13	1	12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1	1	0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20	19	1		
·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3	3	0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16	1	15
		·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14	0	14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7	1	6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17	0	17	
	·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2	0	2	
	·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1	1	0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0	0	0
		·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16	0	16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14	3	11
		· 도서관 이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14	2	12
	공간의 개방성 확대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8	0	8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15	0	15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 사회문화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17	0	17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18	1	17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20	4	16
		·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8	0	8
		·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2	2	0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1	1	0
·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7	5	2	
·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4	1	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5	4	1	
	·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3	2	1	
도서관 인프라 확대	·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25	8	17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연구	12	1	11	



## 4.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시행계획의 목표달성도 등을 포함한 총 4개 항목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의 세부 내용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평정	
			1~6 단계	가중치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목표나 중점과제와의 연계성 정도		1.5
	성과지표의 대표성	과제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여부		1.0
	추진내용의 명확성	추진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정도		1.0
	추진방법의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내용이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정도		1.0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의 정도		1.0
	추진의 충실성	당초 설정한 추진 일정에 따라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도		1.0
	추진상황의 모니터링 충실성	추진상황이 얼마나 충실히 모니터링되고 있는지의 정도		0.5
	추진체계의 적정성	기관의 특성 반영 및 대응 전략의 적정성 정도		1.0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추진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충분히 협조하여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도		0.5
	예산집행실적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충실성 및 이행 정도		1.0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목표달성 수준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5
	정책 효과성	해당 과제가 정책 진흥에 이바지한 정도		1.0
	정책의 개선 정도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정도		0.5
우수/혁신사례	우수사례	정책성과 및 사례의 피급효과		3.0
최종단계	# 단계* * 평가지표별 평정(단계×가중치) 총합 / 가중치 총합(15.5) = # 단계 (반올림 적용)			
평가등급	등급	우수	정상추진	미흡/개선필요
	단계	5~6단계	3~4단계	1~2단계

## 5. 평가방법

추진실적 평가는 기관별 자체평가, 평가위원단 점검·평가, 위원회 심의 총 3단계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평가절차의 운용은 위원장이 위촉한 평가위원단\*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세부 단계별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성) 관계 전문가 20명 내외 / (역할) 기관별 자체평가 점검·평가, 성과분석, 개선안 제시 후 위원회 보고

**표 3-2-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절차

평가계획 통보 (1월)	· 자체평가보고서 및 작성 지침 등 평가계획 통보 (도서관위원회 → 평가 대상기관)
↓	
기관별 자체평가 (2~3월)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고제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대상기관 → 도서관위원회)
↓	
평가위원단 평가 (4~6월)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 (평가위원단) · 평가위원단 평가결과(안)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도서관위원회 → 평가 대상기관)
↓	
이의신청 (7월)	· 평가위원단 재검토 및 이의신청 결과 안내 (도서관위원회 → 평가 대상기관)
↓	
평가결과 확정·통보 (8~9월)	· 평가위원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도서관위원회 보고 · 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 (도서관위원회 → 평가 대상기관) · 도서관위원회 평가결과 국회 보고 (도서관법 제46조외3)
↓	
평가결과 환류 (10~12월)	·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 (평가 대상기관) · 우수과제 포상/홍보 및 평가결과 점검 등 추진 (도서관위원회)

**표 3-2-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평가위원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제분과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이 지 연 (평가위원단장 분과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 선 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영 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송 민 선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
	김 용 환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이 경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제2분과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박 성 재 (분과장)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교수
	이 재 선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박 진 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분과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정 진 수 (분과장)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 규 환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대 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고 재 민	수원고려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
제4분과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배 경 재 (분과장)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승 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 수 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 대 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각 분과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4대 전략방향에 속한 과제를 점검·평가함

## 제3절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제7기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1년도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 및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다.

### 1.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

#### 1) 추진 개요

도서관주간(4.12~4.18)은 1964년부터 민간주도(한국도서관협회)로 운영되었으나 처음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 조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도 ‘제57회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도서관 현장과의 협력으로 990개의 전국 단위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었다.

‘제57회 도서관주간’ 세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공식주제·표어 공모(2.17.~2.24., 202편), 대국민 설문조사 등 1·2차 심사·발표(3.5)
- 조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1차 2.19. / 2차 3.25.)
- 공식 포스터 및 배너 제작·배포(3.5.~3.31.)
- 제57회 도서관주간 공식 홈페이지 및 이벤트 페이지 오픈(4.2)
-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위원회 발족 회의 개최(4.6)
- 제57회 도서관주간 집중 홍보기간(4.6~4.11)
- 제57회 도서관주간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4.12, 국립중앙도서관)
- 제57회 도서관주간 운영(4.12~4.18, 전국 도서관 990개 프로그램)
-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실적 등록(~4.30, 대표 홈페이지)
- 제57회 도서관주간 운영위원회 자체평가(1차 5.7~5.12(서면) / 2차 5.18)
- 제57회 도서관주간 결과보고 및 조직위원회 해단 회의 개최(5.28)
-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 결과 공유 및 하이라이트 영상 안내(6.16)

#### 2) 주요 내용

‘제57회 도서관주간’은 4월 12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4월 18일까

지 7일간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쉽표 하나, 도서관’이란 주제로 전국도서관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부대행사: 작가와의 만남으로 운영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영상 상영 및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2부 부대행사: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영화 불멸의 이순신·황진희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인 김탁환 소설가와 함께 작품 속 숨은 이야기와 작가 근황 등을 공유하였다. 김탁환 소설가와 정용실 KBS 아나운서와의 대담 시간에는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온라인 참석자와 함께 공유하였다. 온라인 실시간 접속 115명, 누적조회수 1,076회(‘21.6.17 기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기념행사의 세부 일정과 주요내용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제57회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진행
(1부) 기념식	14:00 ~ 14:03	3'	국민의례 및 안내	
	14:03 ~ 14:07	4'	기념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4:07 ~ 14:11	4'	기념 영상	
	14:11 ~ 14:15	4'	비전 선포식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위원회 등
(2부) 부대행사: 작가와의 만남	14:20 ~ 14:30	10'	대담	김탁환 소설가와 정용실 아나운서
	14:30 ~ 14:50	20'	강연	김탁환 소설가
	14:50 ~ 15:10	20'	질의응답 및 폐회	

**표 3-3-2** ‘제57회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유형별 프로그램 (990개)	강연	공모	공연	목록배부	시상	참여 이벤트	홍보	전시	체험	전시 및 체험	기타
		347	3	29	9	1	249	18	45	58	185

지역별 프로그램 (990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7	114	117	27	46	23	6	2	52	6	15	14	38	15	75	68

※ 총 990개 프로그램 (국립중앙도서관 7개, 공공도서관 983개) 운영  
 ※ 출처: 제57회 도서관주간 공식 홈페이지(<http://www.klacr.jp/libraryweek>, 한국도서관협회)

위원회는 민관 홍보협력 등 대국민 홍보 자문 및 도서관주간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실행 아이디어 논의를 위해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3-3**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운영)위원회 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공동 위원장	신 기 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서 해 란	국립중앙도서관장	
	남 영 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직 위원회 위원	박 주 옥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장	
	최 현 미	문화일보 편집국 문화부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언론
	지 순 한	TVN 사이언스TV 국장	언론
	유 성 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독서(지자체)
	오 세 훈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대학
	오 덕 성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서울영선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
	오 정 훈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장 (한국원저력연구원)	전문
	간사	이 용 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서 유 원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장	
정 진 희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사업 운영 총괄 (미디어북톡 대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조 현 양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운영 위원회 위원	이 진 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최 지 훈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사무관	홍보
	김 승 정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사무관	국립
	노 은 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작은도서관 담당)	작은
	장 보 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장애인
	윤 희 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사무관	청소년
	김 선 경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서문화팀장)	독서(지자체)
	박 현 우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성 명 희	한국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협 단체 공공
	강 홍 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대학
	이 인 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처장 (서울관광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
	김 상 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국도연구원 지식관리팀장)	전문
	송 현 경	내일신문 기자	언론
	김 기 중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부 차장	언론
	간사	이 용 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서 유 원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장	
정 진 희		제57회 도서관주간 홍보사업 운영 총괄 (미디어북톡 대표)	

## 2.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 1) 추진 개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21 대한민국 도서관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다. 동 행사는 위원회 대표행사로 정착될 예정이며, 다양한 참가자에게 도서관을 홍보하고 정책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대국민 문화행사이다.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세부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1 대한민국 도서관한마당’ 온·오프라인 홍보(9.1~12.10)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공고 및 접수(9.1~11.9)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제안서 접수(10.4~11.9)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1차 전문가 평가(11.11)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2차 대국민 투표(11.15~11.19)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결과발표(11.23)
-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11.30)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공고 및 접수(9.1~10.10)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전문가 평가(10.14)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OT&멘토링(10.21~11.11)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결과물 제출(11.12)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1차 대국민 투표(11.22~11.29)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최종심사, 시상식(12.1)
-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정책 포럼’ 개최(12.2)

표 3-3-4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추진 성과

구분	공모전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영상)	해커톤 대회	정책 포럼
참여 대상	정부·기관	기관·전국민	전국민(청년)	전문가·관계자
추진 성과	도서관 현장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기관 관계자 사기 증진		멘토링, 메타버스 회의 등 새로운 형식 도입	도서관 및 타 분야 간 융복합 도입

**표 3-3-5**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홍보 실적

구분	내용	노출 및 조회 수	비고
웹사이트	광화문1번가, 공모전 사이트 등	14,088	
블로그	공식 블로그 및 인플루언서	2,680	
SNS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80,738	
유튜브	공식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	8,279	
기관연계	각 대학교 및 기관 홍보 협조	291	리스트업 수

※ 조회 수 공개 없는 기관이 존재. 전체 노출 수는 더 높다고 판단.

## 2) 주요 내용

'2021 대한민국 도서관한마당' 행사는 '새로운 일상, 지속 가능한 도서관의 가치와 미래 상'이란 주제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공모전 시상식(11.30), 해커톤대회(12.1), 정책포럼(12.2)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11.30)은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서관정책 우수사례와 도서관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홍보영상 분야의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광화문1번가'의 대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의 우수사례(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 '전북 완주군'의 홍보영상(콩쥐팍쥐 가족의 소원)에 대한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날(12.1)에 개최한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는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6개팀이 2개월간 전문가 멘토링과 팀별 활동, '광화문1번가' 대국민 투표를 거쳐 구체화한 도서관 정책 아이디어를 최종 발표하는 자리였다. 청년들의 무모한 상상력과 진지한 고민이 반영된 도서관 정책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셋째 날(12.1) 개최하는 '도서관 정책 포럼'은 '메타버스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2가지 주제의 세션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강연 형식으로 접해본 시간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새로운 일상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고, 장윤주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세션별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거쳐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질의는 현장참여자는 물론이고 유튜브 시청자 역시 댓글 기능을 통하여 참여했다. 기념행사의 세부 일정과 주요내용은 <표 3-3-6>과 같다.

**표 3-3-6**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진행 등)	
도서관 정책 공모전	[세션1] 2021 도서관정책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사례 공유회			
	14:00 ~ 14:01	1'	개회 참석자 소개	
	14:01 ~ 14:05	4'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4:05 ~ 14:15	10'	시상식	총 6개팀 시상 및 사진 촬영
	14:15 ~ 14:25	10'	공유회	영상홍보 분야 최우수상 '전라북도 완주군' 발표
	14:25 ~ 14:45	20'	공유회	우수사례 분야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표
	[세션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설명회			
	14:45 ~ 15:15	30'	설명회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15 ~ 15:25	10'	질의응답 및 폐회	
	15:25 ~ 15:30	5'	해커톤대회 안내	
미래 도서관 해커톤 대회	시간	내용	비고(진행 등)	
	[세션1] 해커톤 대회			
	14:00 ~ 16:15	135'	본선 6개팀	특별 주저발표(10분) 및 질의응답
	[세션2] 시상식			
	16:15 ~ 16:30	15'	최종 심사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가작 선정 (심사위원 점수집계)
	16:30 ~ 16:35	5'	심사 총평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6:35 ~ 16:38	3'	메이킹 영상 상영	총 6개팀 해커톤대회 준비 활동 영상
	16:38 ~ 16:53	15'	시상식	총 6개팀 시상 및 사진 촬영
16:53 ~ 17:00	7'	정책 포럼 안내		
미래 도서관 정책 포럼	시간	내용	비고(진행 등)	
	[세션1] 메타버스와 도서관서비스			
	10:00 ~ 10:05	5'	오프닝 공연	VR 드로잉 퍼포먼스 및 개회
	10:05 ~ 10:35	30'	기조강연	메타버스,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 (김상윤 중앙대 교수)
	10:35 ~ 10:55	20'	주저발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서관 (김규환 인천대 교수)
	10:55 ~ 11:15	20'	주저발표	디지털사민 MZ세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서비스 (권선영 한남대 교수)
	11:15 ~ 11:55	40'	질의응답	발제자 및 온·오프라인 참석자 전체
	11:55 ~ 12:00	5'	폐회, 2부 안내	
	[세션2]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14:00 ~ 14:30	30'	기조강연	새로운 일상과 생태적 전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14:30 ~ 14:50	20'	주저발표	위기와 도전의 리더십, 도서관의 미래 혁신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교수)
	14:50 ~ 15:10	20'	주저발표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5:10 ~ 15:50	40'	질의응답	발제자 및 온·오프라인 참석자 전체
15:50 ~ 16:00	10'	마무리말씀, 폐회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표 3-3-7**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수상작

	훈 격	팀명 및 제목	포상금
도서관 정책 공모전 (우수사례)	최우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 책과 차, 사람이 만나는 공간)	200만원
	우 수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종로도서관의 역사, 100년만에 세상 밖으로)	150만원
	장 려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독서로 마음건강 프로젝트)	100만원
도서관 정책 공모전 (홍보영상)	최우수	전라북도 완주군 (공주팔쥐 가족의 소원)	200만원
	우 수	충청남도교육청 (우리집으로 들어온 도서관 '충남교육청 통합잔디도서관')	150만원
	장 려	임고은 (전자책 꿈이랑 시집)	100만원
미래도서관 해커톤 대회	최우수	Brown Sensation : 박진우, 황민식 (메타버스 도서관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찾아 "아테네" )	200만원
	우 수	음옥아희예 : 박민음, 김아현, 이선옥, 임승희 (탐카이브=시공이 많으면 기록으로 간다)	150만원
	장 려	메타버스 기사 : 이효진, 김다현, 권지현, 장소영 (메타버스를 이용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100만원
	입 선	사서고생 : 박현청, 문정은, 이다인, 이예준 (위두위두는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50만원
		독소리 : 김지민, 김지홍, 유민주 (온라인 스토리워크 애플리케이션 "메타북스" 구축 제안)	
		메타버스 : 박한비, 박규희 (전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부스 행사)	

## 제4절 도서관계 현안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포럼 운영

제7기 위원회에서는 총 3회의 도서관정책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제7기 위원회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주제 및 주요내용
제1차	2020. 9. 4.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내용: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미래도서관 정책 방향 제안
제2차	2020. 11. 1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제: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 내용: 통일에 대한 도서관계 준비, 통일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남북 도서관계 교류와 협력 방안 모색
제3차	2021. 9. 3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제: 남북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 내용: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도서관계의 통일인식,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1.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2020. 9. 4.)

####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전세계 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등 도서관이 직면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찾는 도서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2020년 9월 4일에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2) 주요 내용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을 주제로 하여, 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이 후원하였다.

포럼 개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의 현장참석 외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실시간 접속 357명, 누적조회수 3,700여회(20.10.14 현재)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포럼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정책포럼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3:30 ~ 14:00	30'	등록/로그인	
14:00 ~ 14:05	5'	개회 및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4:05 ~ 14:10	5'	축사	박정 국회의원,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대표
14:10 ~ 15:00	50'	기조강연(온라인)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명예교수) “글로벌·디지털 시대 ‘살아있는’ 지식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15:00 ~ 15:20	20'	주제발표	서혜란(국립중앙도서관장)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하는가?”
15:20 ~ 16:00	20'	종합토론	좌장: 남영준(중앙대 교수, 한국도서관협회장, 7기 위원) 공공도서관: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학교도서관: 이덕주(송곡여고 사서교사) 대학도서관: 정재영(서강대 로올라도서관 부장) 전문(의학)도서관: 이은주(고려대 의학도서관 과장)
16:00 ~ 17:00	60'	질의응답 및 폐회	

포럼에 앞서 신기남 위원장은 코로나19 인하여 우리일상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변화의 흐름에 맞서는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어떤 상황에도 늘 시민의 곁을 지켜왔던 우리 도서관이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박정 의원은 축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혁신적이고 현장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막막하기는 하나, 전문가 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일상에 발전적 방향의 도서관 모습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길 소망한다”고 하였다.

포럼의 주요내용은 기조강연으로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글로벌·디지털 시대 살아있는 지식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이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와 도서관의 대응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한국도서관협회장)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공공도서관/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학교도서관/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대학도서관/정재영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부장, 전문(의학)도서관/이은주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과장 등 도서관 전문가들이 조한혜정 교수와 서혜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인

한 도서관의 경험,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미래 도서관상,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의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논하는 한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지식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 시대 집단지성으로서의 도서관과 지식큐레이터이며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도서관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사회적 안전망이며 돌봄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안하는 등 도서관이 우리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그림 3-4-1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정책포럼 실황



## 2. 제2차 도서관정책 포럼(2020. 11. 10.)

###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시대적 과제인 통일에 대한 도서관계 준비를 위하여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도서관계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11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2) 주요 내용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을 주제로 하여, 주한독일문화원(원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의 현장참석 외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였다. 현장참가 50명, 온라인 실시간 접속 50명, 누적조회 620여회(20.11.30 현재)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포럼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4-3>과 같다.

**표 3-4-3**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정책포럼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40 ~ 15:00	20'	등록/로그인	
15:00 ~ 15:05	5'	개회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5:05 ~ 15:10	5'	인사말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장
15:10 ~ 15:35	25'	기조강연(온라인)	클라우드아 룩스 훔볼트 대학교 명예교수 “도서관 통일에 대한 독일 경험”
15:35 ~ 16:00	25'	주제발표 1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21세기, 통일인식과 남북 문화교류 방향”
16:00 ~ 16:25	25'	주제발표 2	송승섭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계의 남북 교류: 과거, 현재, 미래”
16:25 ~ 16:50	25'	주제발표 3	정진근 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저작권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16:50 ~ 17:50	60'	종합토론	좌장: 고영만(성균관대 교수, 7기 남북교류수위원회 위원장)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남북 문화교류의 과제” 윤명희 파주중앙도서관장 “공존, 평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 김기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남북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17:50 ~ 18:15	25'	질의응답 및 폐회	

포럼 개회사에서 신기남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의 중요과제 중 하나가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에 대한 준비이다. 여기에는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며, 평화공존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과 정책을 연구하고, 남북 도서관의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며, 통일 이후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우리 도서관계의 준비와 노력이 언젠가는 남북도서관계가 함께 모여 상호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 도서관계가 통일의 큰 축으로 역할 할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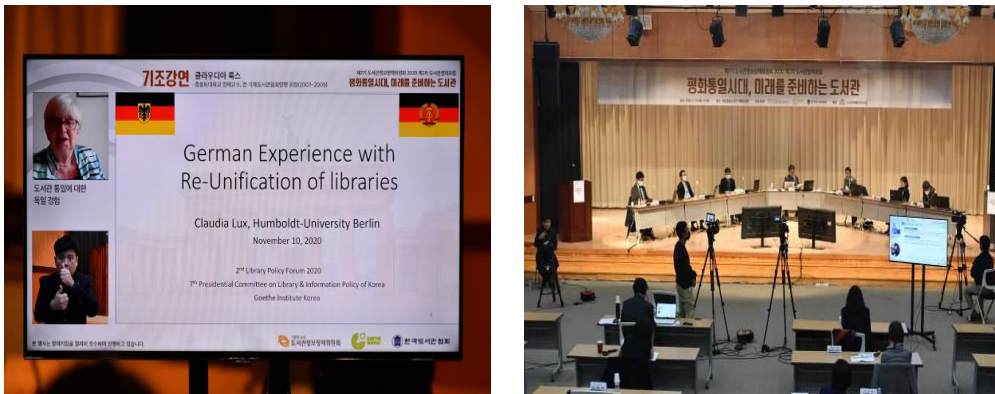
공동주최 기관인 주한독일문화원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포럼은 통일 독일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 독일이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 년간 겪은 경험과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험이 앞으로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과제를 예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조강연으로 클라우드아 룩스 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도서관 통일에 대한 독일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간 도서상호대차 등을 비롯 교류가 많았으나, 통일 후 양국의 도서관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은 통일 직후의 기대와 희망의 시기 이후,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여전히 독일내 동·서 간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호간의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21세기, 통일인식과 남북 문화교류 방향”을 주제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젊은 층 사이에서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많이 좌우됨에 따라, 향후 남북문화교류 방향은 문화교류의 공간 확대와 교류 방법의 다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승섭 명지대학교 교수는 “도서관계의 남북교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00년 이래 남북도서관계 교류를 설명하고, 남북도서관계 미래를 위한 준비로 북한 자료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접근성·결속력·전문성 있는 협의체 및 조직 마련, 적극적인 북한자료 수집과 활용 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4-2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정책포럼 실황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저작권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하며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스템을 위한 미래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한 문화교류협력을 강화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서관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고영만 소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통일연구원 나용우 연구위원, 파주시중앙도서관 윤명희 관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김기현 기획실장 등이 참여하여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도서관계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통일시대의 도서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분단국가에서 하나된 독일의 도서관계 통합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남북한 도서관 통합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3. 제3차 도서관정책 포럼(2021. 9. 30.)

#### 1) 추진배경

위원회는 시대적 과제인 통일에 대한 도서관계 준비, 특히 한민족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도서관정책에 대한 정책 포럼을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 2) 주요 내용

“남북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을 주제로, 주한독일문화원(원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의 현장참석 외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였다. 현장참가 50명, 온라인 실시간 접속 61명, 누적조회 604여회('21. 11. 09 현재)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포럼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4-4>과 같다.

**표 3-4-4** '남북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정책포럼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40 ~ 15:00	20' 등록/로그인	
15:00 ~ 15:05	5' 개회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5:05 ~ 15:10	5' 인사말(영상)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장
15:10 ~ 15:15	5' 인사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15:15 ~ 15:20	5' 축사(영상)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
15:20 ~ 15:45	25' 기조강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민족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 통일 가까운 미래”
15:45 ~ 16:05	20' 주제발표 1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도서관계의 통일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16:05 ~ 16:30	25' 주제발표 2 (온라인)	마르틴 홀렌더 베를린주립도서관 이사회 연구위원 다니엘라 할핑 전 독일사서협회장 전 베를린주립도서관장 “통일 이후 독일 도서관의 통합과 발전 베를린 주립도서관에서의 경험”
16:30 ~ 17:30	60' 종합토론 주제발표 3	좌장 고영만 성균관대 교수, 7기 남북교류소위원회 위원장 정연경 한국도서관협회 국제교류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 17:40	10' 폐회	



개회사에서 신기남 위원장은 “2021년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된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최근 남북 관계가 결코 낙관적  
인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포럼이 한 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도서관이 감당해야할 역할을 모색하고, 우리가 본받아야할 독일의 통일경험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공동주최 기관인 주한독일문화원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원장은 인사말에서 “독  
일에는 1990년 초에도 동서독이 통일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변화는 오늘날 독일의 도서관 분  
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한독일문화원은 도서관과 통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독일의 경  
험을 나눔으로써 포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으나, 남북한으로 분단된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의 상황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며 통일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통일리터러시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은 축사에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  
고, 빌리는 곳’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으로 진화하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리 도서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아젠다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기조강연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한 민족의 교류와 공감대 형  
성: 가까운 미래, 통일”을 주제로, 남북 교류 전반의 의미와 앞으로의 해야할 일을 논하면서  
도서관 교류를 사사회문화교류에 포함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사회문화공동체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독일 외에 북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다양한 통합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서관계의 통일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대상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다. 응답도서관 중 북한 관련 자료보유율 82%, 관련 프로그램 진행 4%이지만, 향후 남북도  
서관 교류협력에 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문화 교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며, 통일의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28%의 도서관이 긍정의사를 밝혀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서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르틴 홀렌더 베를린주립도서관 연구위원과 다니엘라 뢰핑 전 독일사서협회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베를린 주립도서관의 재통합과 성공적 통합의 토대”를 주제로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를 하였다. 기존 하나의 도서관이 두 개의 도서관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했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통합이 국가적 차원의 통일보다 훨씬 수월하게 추진되었으나, 각 지역의 차별성을 추구하며 실질적 문제해결의 입장에서 진행되었음을 뢰핑 전 관장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서관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고영만 소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정연경 국제교류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섭 교수,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서관의 준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통일에 대한 필연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대별 통일인식 등 통일교육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갖고, 통일 대비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문화통합과정의 부정적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통일 이전부터 사회문화교류와 사회문화공동체 구성 실천 등 도서관의 시대적 역할 수행 필요하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2021년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계 남북 교류 추진 계획(안)’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추진중에 있어 이날의 논의는 남북 도서관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안)” 기초자료 활용하도록 연구진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림 3-4-3** ‘남북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정책포럼 실황



## 제5절 정책과제 공유 및 이슈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제7기 위원회는 각 소위원회별 추진한 정책과제 TF의 활동과 이슈페이퍼를 바탕으로 과제의 정책화 지원을 위해 총 3차례 도서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도서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였다. 지난 2년간 위원회에서 개최한 도서관정책세미나의 일정은 <표 3-5-1>과 같다.

표 3-5-1 제7기 위원회 도서관정책세미나 개최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세부 주제
제1차	2021. 10. 13.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온라인)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 도서관 현장의 이슈들, 스마트워크를 통한 길 찾기 · 공공도서관 브랜드를 위한 특화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제2차	2021. 11. 1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 농인전문도서관 건립방안
제3차	2021. 12. 16.	국회의원화관 제9간담회실	·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이 주는 치유와 힘 · 도서관 공간 혁신

### 1. 제1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0. 13.)

#### 1) 추진배경

위원회는 각 소위별 진행한 정책과제 TF 중 현장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내용 공유가 필요한 과제 3가지를 선정하여 제1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도서관 현장을 찾아가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행사기간 중인 2021년 10월 13일에 국립중앙도서관(온라인)에서 개최하였다.

#### 2) 주요 내용

세미나는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도서관 현장의 이슈들, 스마트워크를 통한 길 찾기’, ‘공공도서관 브랜드를 위한 특화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정책과제 TF 위원들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영상 생중계 송출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토론토 이어졌다. 세

미나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5-2>과 같다.

**표 3-5-2 제1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6:50~16:53	3'	✓ 개회 및 발표 안내 · 이상복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기획소위원장
16:53~17:18	25'	✓ [발표1]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 고재민 수원과대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17:18~17:20	2'	휴 식
17:20~17:35	15'	✓ [발표2] 도서관 현장의 이슈들, 스마트워크를 통한 길 찾기 · 이진우 위원 및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17:35~17:37	2'	휴 식
17:37~17:57	20'	✓ [발표3] 공공도서관 브랜드를 위한 특화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 정대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7:57~18:00	3'	✓ 마무리 및 폐회

**그림 3-5-1 제1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2. 제2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1. 11.)

### 1) 추진배경

위원회는 제2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와 소통 및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정책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세미나는 2021년 11월 11일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2) 주요 내용

세미나는 두가지 주제인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농인도서관 건립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희운 대진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과 이현주 대진대학교 교수(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가 토론에 참여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농인도서관 건립 방안」은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관이 발표하고, 이어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제7기 도서관위원회 지식정보격차 해소 소위원장)와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이 농인들의 사회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농인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미나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5-3>과 같다.

**표 3-5-3** 제2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05	5'	✓ 개회사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4:05 ~ 14:35	30'	✓ [발표1]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방안 · 윤희운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4:35 ~ 14:55	2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4:55 ~ 15:00	5'	휴 식
15:00 ~ 15:30	30'	✓ [발표2] 농인전문도서관 건립 방안 ·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관
15:30 ~ 15:50	2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50 ~ 16:00	10'	✓ 마무리 및 폐회

**그림 3-5-2 제2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3.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2021. 12. 16.)

#### 1) 추진배경

위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주었던 치유와 힘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대표 박정 의원, 이하 국회포럼)과 공동 개최하였으며, 2021년 12월 16일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 2) 주요 내용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신기남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정 의원의 인사말과 국회 포럼 간사인 강득구 의원, 한무경 의원과 도종환 의원, 김민석 의원, 이광재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기조강연자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엑세스 운동과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도서관이 주는 치유와 힘」은 ‘2021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은평구립도서관의 나은주 팀장과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의 양향숙 사서교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도서관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로 「도서관의 공간 혁신」을 발표하는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은 의정부 가재울도서관과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의정부 도서관의 건립·운영사례를 토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미나는 유튜브 ‘강득구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송출하였으며, 온라인 참여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미나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5-4>와 같다.

**표 3-5-4**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5:30~15:33	3'	✓ 개회사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15:33~15:36	3'	✓ 인사말 · 박정 국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36~15:45	9'	✓ 축사 · 강득구 국회포럼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무경 국회포럼 간사, 국민의힘 의원 · 도종환 국회포럼 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국회포럼 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15:45~16:15	30'	✓ [기조강연]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 ·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16:15~16:20	5'	휴식
16:20~16:50	30'	✓ [발표1] 도서관이 주는 치유와 힘 · 나은주 은평구립도서관 팀장 · 양향숙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16:50~17:20	30'	✓ [발표2] 도서관 공간 혁신 ·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
17:20~17:30	10'	✓ 마무리 및 폐회

그림 3-5-3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실황





## 제6절 도서관계 국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1. 추진배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WHO는 2020년 3월 11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포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제7기 위원회 기간 중 지속되었으며, 도서관계 국제 협력은 예년과는 다른 측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제 도서관계 동향 조사·제공, 국제 도서관계 다양한 웨비나 참여, 국내 주한 문화원과의 협력으로 도서관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2. 주요 내용

#### 1)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계 동향 조사·제공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제 도서관계 동향과 추이를 알리고자 하였다.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도서관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5회, ’20.3~6)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세계 도서관계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부처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였다.

표 3-6-1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 도서관계 동향 조사

회차	날짜	주요 내용
1	'20.3.16. (문체부 공유)	①국내 확진자 발생과 감염증 예방을 위한 도서관 휴관 ②전세계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 도서관 동향: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2	'20.3.31. (홈페이지 게재)	①미국·영국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원 ②디지털콘텐츠 서비스지원을 위한 저작권 문제 공동 해결 및 구매계약 관련 지원
3	'20.4.16. (홈페이지 게재)	①코로나19 이후,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논의 필요성 대두 ②도서관의 연구와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활용과 저작권 문제 ③코로나19 관련 기록과 사회적 기억 수집·보존 프로젝트
4	'20.4.24. (홈페이지 게재)	①코로나19 확산과 정보감염증 우려 ②코로나19를 극복하는 미디어리터러시 ③위기의 시기에 도서관의 역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5	'20.6.8. (문체부 공유)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코로나 19와 세계 도서관 현황” *코로나 19확산 부터 재개관 준비까지의 전세계 도서관 동향 수록

#### 2) 도서관계 국제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국외도서관계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제도서관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주관

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WLIC)에 참여하여 왔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도서관의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조사 및 연구 개발 등을 진흥시키기 위해 192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약 150개국 1,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제도서관연맹(IFLA) 연차총회 및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위원장이 참석하였었다. 그러나 7기 위원회 첫해인 2020년 8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예정되었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됨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 도서관 관련 국제회의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며 그나마 일부 행사만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간신히 추진되었다. 2020년도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잠시 완화된 시기 일부 국제회의가 유럽 내에서 대면으로 행해지긴 하였으나, 전세계의 도서관은 2020년 3월 이후 휴관과 임시 개관을 반복하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 속에 바쁘게 운영되었다.

2020년도 하반기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도서관계는 코로나 극복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대면 교류를 대신하여 온라인 비대면 국제회의 또는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도서관연맹 상임위원회 각 분과를 비롯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 영국도서관 전문가협회(CILIP) 등 각 국 도서관의 경험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교류하였으며, 위원회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2021년도 국제도서관연맹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Let’s work together for futuer)”라는 대주제하에 Libraries Innovate, Libraries Include, Libraries Sustain, Libraries Inspire, Libraries Enable을 세부주제로 8월 17일부터 8월 19일 까지 3일간 전 세계를 3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대회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개최된 대회는 코로나 이후의 도서관 경험이 발표의 상당 부분을 이루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접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화된 세상, 전자책,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디지털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여러 세션에서 강조되었다. 위원회는 비록 대면 교류는 없었으나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제도서관연맹 사무국과의 유기적인 정책 및 협력을 위한 교류를 유지하였다.

또한 국내 주재 문화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추진하였다. 2020년 2월 주한독일문화원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주한독일문화원이 공동으로 국제회의 개최와 양국 도서관계 전문가를 교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성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독일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추진하였다

## 제7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 사서와 정책담당자, 도서관 관련 기관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서관계 현안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도서관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지난 2년간 위원장의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은 <표 3-7-1>과 같다.

표 3-7-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

연번	개최일	주요 내용
1	2020. 04. 10.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관련 단체 접견 및 면담
2	2020. 04. 16.	· 청와대 사회수석 예방 및 면담
3	2020. 04. 2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 및 면담
4	2020. 04. 24.	· 국립중앙도서관장 접견 및 면담
5	2020. 06. 10.	· 충남도서관장 접견 및 면담
6	2020. 06. 17.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접견 및 면담
7	2020. 07. 01.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현장 방문
8	2020. 07. 08.	·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창립 관련 간담회 참석
9	2020. 07. 24.	·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참석 및 축사, 관계자 면담
10	2020. 09. 10.	·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총회 및 콘퍼런스 축사
11	2020. 10. 13.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문헌보존관 설립부지 TF 면담
12	2020. 10. 15.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식 참석 및 축사
13	2020. 10. 22.	·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 달성 기념행사 축사
14	2020. 10. 28.	·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 및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
15	2020. 10. 29.	· 대전대학교 중앙도서관 방문 및 대전통일콜로키움 초청 특강
16	2020. 11. 04.	· 부산대표도서관 개관식 참석 및 축사
17	2020. 11. 06.	· 한국문헌정보학회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축사
18	2020. 11. 27.	· 종로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축사
19	2021. 01. 28.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14차 정기총회 및 현안세미나 축사
20	2021. 02. 18.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신입회장 접견 및 면담
21	2021. 02. 25.	· '21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및 축사, 국토연구원 방문

연번	개최일	주요 내용
22	2021. 03. 22.	·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개관 행사 참석 및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접견
23	2021. 04. 12.	· 제57회 도서관주간 비전 선포식 참석 및 축하
24	2021. 04. 15.	·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간사(국회의원) 접견 및 면담
25	2021. 04. 15.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위원장 인터뷰
26	2021. 04. 23.	· 2021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관계자 면담
27	2021. 04. 27.	· 전남대학교 도서관 '정보마루' 개관 축하
28	2021. 05. 04	·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및 면담
29	2021. 05. 11.	· 통일부 주관 판문점 특별견학 참석 및 시찰
30	2021. 06. 28.	· 국립중앙도서관 ·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공동전시 개막행사 참석 및 축하
31	2021. 07. 27.	· 오픈액세스 관련 한겨레 신문 좌담회 참석 및 토론
32	2021. 08. 20.	·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하
33	2021. 08. 31.	· 한국사서교사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 면담
34	2021. 09. 09.	·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축하
35	2021. 10. 13.	·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축하 및 우수도서관 시상
36	2021. 10. 26.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참석 및 축하
37	2021. 11. 12.	· 은평구립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축하
38	2021. 11. 24.	· 제7회 아시아전문도서관 국제회의 축하(CoASL)
39	2021. 11. 30.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포럼 축하
40	2021. 12. 09.	· 의정부음악도서관 현장 방문 및 의정부 시장 면담
41	2022. 01. 27.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15차 정기총회 및 대학도서관 현안 세미나 축하
42	2022. 02. 22.	· 파주 중앙도서관 현장 방문
43	2022. 02. 28.	·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하
44	2022. 03. 11.	·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문화예술정책실장 및 지역문화정책관 접견 및 면담
45	2022. 03. 14.	·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의 길' 개관식 참석 및 축하
46	2022. 04. 01.	·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참석 및 축하
47	2022. 04. 04.	· 강원대학교 초청 특강

그림 3-7-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21년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정기총회 축사('21.2.25.)



국토연구원 전문도서관 관계자 면담('21.2.25.)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개관 행사('21.3.22.)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접견('21.3.22.)



제57회 도서관주간 비전 선포식('21.4.12.)



제57회 도서관주간 축사('21.4.12.)



2021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21.4.23.)



2021 '세계 책의 날' 관계자 면담('21.4.23.)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21.5.4.)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21.5.4.)



통일부 주관 판문점 특별견학 시찰('21.5.11.)



국립중앙도서관 ·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공동 전시 개막 행사('21.6.28.)



한국사서교사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 면담('21.8.31.)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21.10.13.)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우수도서관 시상('21.10.13.)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21.10.26.)



의정부 음악도서관 방문('21.12.9.)



의정부 시장 면담('21.12.9.)



파주 중앙도서관 방문('22.2.22.)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의 길' 개관식 참석('22.3.14.)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의 길' 개관식 축사('22.3.14.)









## 1.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b>위원장</b> 신기남	·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 (전)제15·16·17·19대 국회의원	 고영만 (소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성균관대 문과대학 학장
 곽미순	· 도서출판 한울림 대표 ·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영일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남영준 (소위원장)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노영희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
 박재섭	·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 (전)백인제기념도서관 관장	 손애경 (소위원장)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디어콘텐츠 창작학과 교수 · (전)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심의위원장
 안일남	· 청송진보병원 원장 · 사단법인 영릉회 이사장	 오석륜	·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 · (전)국방부 진중문고 심사위원
 이상복 (소위원장)	· 대진대학교 명예교수 · (전)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진우	·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전)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
 이현주	·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 (전)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조현양 (소위원장)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KERIS 이사	 최상희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최현미	· 문화일보 편집국 문화부장 · (전)세종도서 운영위원회 위원	 한혜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본부장 · (전)KERIS 학술정보부장
 홍현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전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 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신기남 재위촉

[ 2020. 4. 10. 파이낸셜뉴스=조용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9일 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2020년 4월 9일~2022년 4월 8일)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부장,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12조에 따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위원회 사무기구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 △다양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며 도서관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과제를 밝히다

### 5. 19. 제7기 출범(‘20. 4. 9.~’22. 4. 8.), 위촉식과 함께 기자간담회 개최

[ 2020. 5. 19. 데일리스포츠한국=이기운 기자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은 19일 제7기 위원회를 위촉하고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제6기 위원회 특별전담반이 약 2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안)’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식 모습.

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에 따라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위원회 역할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이라는 3대 정책 과제와 12개의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전 부처와 도서관, 유관 기관들과 도서관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 정책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제7기 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도서관 정책 홍보사업 활성화, 법적·제도적 과제 개선,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 준비, 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기반 혁신 방안 모색, 도서관 핵심정책 이슈 제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안 등을 추진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 출판, 장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신기남 "도서관법 개정..정책 더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

도서관위원회 29일 첫 전체회의 가져

박양우 "도서관에 디지털콘텐츠 확대"

[ 2020. 5. 29. 이데일리=윤종성 기자 ]

신기남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돼 도서관 정책을 더욱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7기 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에서 “위원회가 도서관계 최고 정책기구인 만큼, 앞으로 바람직하고 바른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발의했던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기 위원회의 과제인 ‘제 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이행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도서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며, 종합계획·시행계획·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열린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 △2020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도서관법 개정 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계획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특히 신 위원장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은 중앙-지자체 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도 제정했다. 위원회 측은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격차 해소 등을 다루는 이 협의체를 통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경제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비대면화를 촉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정책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서관도 디지털콘텐츠 확대 및 창작 지원, 온라인 협업·소통 등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2개 관종에 대해 시범 적용할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은 지표 간소화와 종합계획 이행 사례, 지역 협력 활동 등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전 도서관에 적용할 운영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재인정부, 도서관위 성과내도록 지원해야"

올해부터 종합계획 평가국회 보고 ... 비대면 서비스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 2020. 6. 1. 내일신문=인터뷰 송현경 기자 ]



제 6, 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제 15, 16, 17, 19대 국회의원 제 20, 21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사진 이익중

"2년 전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을 때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 위상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당시 사무기구, 예산, 사무실 등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생불여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아있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위원회라는 의미였죠. 문재인정부가 지지해 줘서 6기 위원회에서 절반쯤은 이뤘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7기 위원회에서 이뤄야 합니다. 7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문재인정부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신 위원장은 제6기에 이어 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재위촉됐다.

2년 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위원회 위상 복원'을 주장했고 위원회가 위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도서관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던 사무기구를 설치했고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7기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내일신문은 신 위원장으로부터 7기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다.

### ■ 축하드린다.

7기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고 망설였다. 도서관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만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7기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 6기에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게 더 어렵다. 각계 인사들의 말씀을 듣고 내 임무를 다 하자, 싶어 맡았다.

### ■ 어느 정도 도서관위원회 위상이 복원됐다.

도서관위원회는 2006년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토대로 2007년에 발족됐다. 노무현정부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했다. 다만 8개월 후 정부가 바뀌면서 역할과 위상이 위축됐다. 1기 위원회 때의 위상으로 복원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6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1년 반 걸려 사무기구를 구성했다. 예산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받았다. 요구했던 것보단 조직, 예산이 축소됐지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예산은 1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각 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해마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실질적으로 보고 받기 시작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다 들어 있다. 이것만 충실히 이행해도 대단하다고 본다.

### ■ 7기 위원 위촉식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맞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위원회는 최고의 도서관 정책기구다. 우리가 결정하면 정책이 수립돼 대통령 명에 의해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도서관 주무 부처는 문체부지만 문체부가 정책을 수립한다고 다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서관 대학도서관은 교육부가 담당하며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장들 소관이다. 이에 각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를 연계한 정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도서관위원회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반해 각 지자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심사하고 수정, 보완 지시를 하는 게 그 예다. 또 해마다 지자체가 실적을 보고하면 심의, 평가할 수 있다.

###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계속 언급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제1, 2차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2차 계획이 공급자 중심이라면 3차 계획은 수용자, 공동체 중심으로 계획됐다.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에 주목했다. 4대 전략방향에 이어 13대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계획의 추진 방식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명시한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서관위원회에 보다 힘이 실렸고 3차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실적을 점검하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주요 부처 도서관 담당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해당 개정안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도서관위원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했다. 국회가 도서관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마련됐다. 굉장히 중요하다.

### ■ 코로나 19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국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실시됐다. 일부 대책들은 평상시에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로 좁히면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들이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책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택배 서비스, 1층 로비에서 책을 대출해 주는 현관 앞 대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대출 등의 사례가 있다.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하면 도서관 대출로 처리해 주는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도 진행됐다. 또 각 도서관의 장비 등이 허락하는 한 전자책 서비스, 사이버 전시, 온라인 강의 등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고 예산도 이런 방향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라이브리리 무크(L-MOOC)'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 **도서관은 출판, 서점, 독서운동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맞다. 그런데 문체부 내에서도 도서관을 다루는 과(도서관정책기획단)와 출판을 다루는 과(출판인쇄독서문화진흥과)가 다르다. 각 과가 속한 국도 각각 지역문화정책관과 미디어정책 국으로 다르다. 많이 지적했는데도 그렇게 돼 있다. 정책 연계가 시급하다.

도서관위원회는 책문화권을 이끌어갈 임무도 갖고 있다. 출판 독서는 대통령 위원회가 없고 문체부 내 1개 국의 힘만으로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가 쉽지 않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책문화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7기 위원회에는 출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출판 독서운동과의 연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분야 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준비 간담회 성료**

대표위원 박 정, 간사위원 강득구·한무경 의원 선임

[ 2020. 7. 9.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 정) 간담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강득구 의원 사무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 정) 간담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강득구·권칠승·김승수·박 정·서동용·서삼석·한무경 국회의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영석 한국사서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강득구·권칠승·김승수·박 정·서동용·서삼석·한무경 국회의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영석 한국사서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운영위원 선임 및 창립기념 토론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포럼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이 포럼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21대에서 다시 활동이 재개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 포럼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차원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 문체위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지난 국회에서 신기남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는데, 21대에 다시 포럼 활동이 재개되어 무척 뜻깊다”며 “사서가 관장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 등을 위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잘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정 의원은 “예산과 정책, 법안 등을 잘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대표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간사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이 선임됐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의 창립 기념 토론회는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4일 금요일에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회 나서서 도서관 발전 선도"

의원 63명 참여,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출범 ... 입법·연구 활동 주력

[ 2020. 7. 27.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출범식에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우리 포럼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 공동체 활동의 핵심기관인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략)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도서관 발전을 선도해나가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출범식에서 박 정 의원의 일성이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2020년 재창립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의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2013년 9월 창립한 이후 2015년까지 활동했으며 5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달 기준 여야 63명의 의원들이 함께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영상을 보내왔으며 박 의원을 포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박종달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김영석 한국사서협회장이 참석했다.

문체위 위원장인 도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강 의원, 한 의원이 간사로 활동한다. 한 의원은 사서 출신으로 의원에 당선됐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취지문에서 의원들은 "도서관은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복합공간"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된 기반에는 혁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지식자산의 샘터에서 자라는 상상과 창의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내 도서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투자도 미흡하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발전에 맞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체위뿐 아니라 교육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가 도서관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연구활동 △입법·정책활동 △기타 교류·협력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 1회 이상 도서관 현안과 대안, 발전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도서관법 등 도서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등 도서관 관련 16개의 법률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외 국내외 주요 도서관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고 도서관·독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앞서 8일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재창립 임시총회 및 간담회가 열렸으며 21 일에는 도 의원 대표발의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서관의 설립목적·설립주체에 따른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시설·장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도록 해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 "도서관,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전' ... "재난시기, 도서관 컨트롤타워 필요"

[ 2020. 9. 7.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팬데믹의 시대, 근대의 종말을 고하는 탈근대, 탈인간 시대의 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지식 정보화를 제대로 해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과와 문화, 삶과 삶을 연결하는 사서들이 명실공히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AI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지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지혜의 시공간이 필요한데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낼 핵심 기관 중 하나일 것이다. 고양된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감을 느낄 수 있는 곳, 이전 세대의 지혜를 담은 책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삶을 고려하며 지금 내가 선 자리를 성찰하고 함께 탐구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환대와 호혜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으로 진화하기 위해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이 열렸다. 사진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팬데믹 시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이었으며 포럼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주관했다.

## ■ 도서관 '제3의 공간'

지식 큐레이터의 역할, 환대와 호혜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강조한 기초강연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우러지고 행복하게 작당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실은 다시 사람을 중심으로 문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동네 아이들을 신인류로 키우는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부터 시대의 첨단 문제를 푸는 지식정보실현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대학' 역할을 하는 도서관까지 아주 다양해질 도서관의 미래를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의 역할'을 다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 TF'를 운영한 끝에 변화된 환경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를 발굴했다.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다양화 △'집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비대면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 △온라인/비대면 기술 인프라 강화 △도서관 안전망 구축 매뉴얼 마련이 그것이다.

서 관장은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는 도서관(new normal library)은 '온라인'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서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안전'한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확보 △비상상황 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적 자원의 재구성과 서비스 혁신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 법 제도 개선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각 도서관 유형별 코로나19 이후 대처법에 대해 논의됐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재난 시기, 도서관의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변화하는 시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배분과 소분화된 정책 실행체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공공도서관 등이 주장됐다.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은 "국가 방역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휴관여부 지침은 내려오고 있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 지침과 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의와 공유,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실행을 도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도서관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저작권법 등 도서관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딱딱하고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각 지역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모색해 봤으면 한다"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삶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열린다

10 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 예정

[ 2020. 11. 10. 뉴스 1=박정환 문화전문 기자 ]



도서관정책토론회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 뉴스1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도서관계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2클라우드아 룩스 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이 "도서관 통일에 대한 독일의 경험"을 주제로 독일 통일과 도서관계 통합 경험에 대해 기조강연한다.

이어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21세기, 통일인식과 남북 문화교류 방향", 송승섭 명지대학교 교수가 "도서관계의 남북교류의 현재와 미래",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저작권법과 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서관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고영만 소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통일연구원 나용우 연구위원, 파주시중앙도서관 윤명희 관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김기현 기획실장 등이 참여하여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통일시대의 도서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현장참여로 진행하며, 한국도서관 협회와 주한독일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됨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위원회 누리집(www.cl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위, 2021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지자체 등 총 투자 규모 1조1021억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확정

[ 2020. 12. 28.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이 확보한 전체 도서관 예산은 1조1021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대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25개 과제 및 17개 시·도의 30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총 투자 계획 규모는 1조1021억원이며 전년 대비 421억원(전년대비 4% 증가)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운영방식의 비대면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5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1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 적용될 지표안을 심의·확정했다. 2021도 운영평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위도서관의 대면서비스 관련 지표 축소 등 기존 지표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주요 관종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학교도서관(교육부 소관) 병영도서관(국방부 소관) 교도소 도서관(법무부 소관)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요구된 만큼 시행계획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도서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7기가 활동하고 있다.

## 지식격차 없는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을 논하다

[ 2021. 3. 11.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신기남)는 2021년 제1차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 신기남) 실무협의회를 3월 11일(목),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국17개 시도 부위원장 및 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 '21년 협의회 운영계획, ▲ 도서관 주요 현안 사항, ▲ '20년 실무협의회 제출안건 추진경과, ▲ 시도별 정책현안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7대 신기남 위원장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발족한 협의회는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서관법상 구성된 시도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장(광역부단체장)과 국가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모여서 중앙-지방간 도서관정책의 연계성 강화, 지역단위 우수 정책 공유 등을 논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위원회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올해 9월까지 평가지표 및 결과 활용 등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신기남 위원장은 “작년 5월 발족한 협의회는 그동안 느슨했던 중앙과 지방간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도서관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전국민이 골고루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계 최고 정책기구로서 최고의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황희 장관 "문화강국 도약 위해선...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중요"

신기남 위원장·소위원장들 만나 도서관계 주요 현안 논의

[ 2021. 3. 22.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조한 얘기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상견례 및 간담회에 참석해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장과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 장관 취임 후 도서관계 인사들과의 첫 만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실효성 있는 도서관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도서관계 의견과 제안을 분야별로 들었다.

신 위원장은 "문체부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신임 장관께서도 도서관계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회가 도서관 정책 총괄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체부는 도서관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도서관주간, 전국 도서관들 행사 '풍성'

[ 2021. 4. 8.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2019년 악기전공 주민들로 구성된 광진정보도서관 앙상블의 도서관주간 축하공연. 사진 광진정보도서관 제공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12일부터 18일까지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가 전국 도서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도서관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협회가 함께 도서관주간 조직·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알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 12일, 김탁환 작가와 함께

다독다독! '집콕 중인 당신, 도서관이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이다. 주제와 표어는 모두 도서관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도서관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7회 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작가와의 만남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한국도서관협회kla1945>)과 제57회 도서관주간 공식 홈페이지(<http://www.kla.kr/jsp/libraryweek>)에서 만날 수 있다. 기념식은 비전 선포식과 홍보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되며 부대행사인 작가와의 만남에는 김탁환 작가가 함께한다. 김 작가는 '우리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위원회 발족 회의. 사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공

이를 위해 도서관위원회는 6일 제57회 도서관주간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었다. 조직위원회에는 도서관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뿐 아니라 전국책 읽는도시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이 함께한다.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 현장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도서관주간 행사를 만들어가는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면서 "앞으로 도서관주간 사업이 더욱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서관 현장과의 다양한 논의구조 또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 "공동체 내 지식공유·교류 공간"

한국도서관협회는 13일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대강의실에서 '제5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 도서관협회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도서관주간과 관련된 도서관별 행사와 프로그램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www.kla.kr/jsp/libraryweek)를 개설·운영한다.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 'SNS 사진 공모전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응답하라 도서관주간'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서관주간 공식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영준 도서관협회 회장(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코로나19를 통해 도서관이 단지 정보만 얻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지식공유와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증되고 축적된, 다양하고 우수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홍보·제공해 문화적 갈증과 정보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도서관의 날' 제정 개정안, 문체위 통과

전국의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연계한 저자강연, 시화전시, 독서퀴즈 대회, 서평공모, 장서기증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도서관들의 자세한 행사 내용은 도서관주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멀리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시기, 가까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해도 좋겠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해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대규모 도서관과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운영해왔다. 지난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해마다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제정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협의회, 정기회의 충남도청서 개최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 발전 방향 등 논의

[ 2021. 6. 29. 쿠키뉴스=오명규 기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9일 충남도청에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이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협의회 정기회의의 참가위원 모습.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직접 만나 중앙과 지방간 도서관 정책의 연계성 강화, 지역단위 우수 정책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도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협의회 운영계획 △도서관법 개정사항 △충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사례 △차기 정기회의 개최지 확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도서관위원회위원장과 도서관정보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도서관은 인류 문명의 보고이자 지식의 산실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소통하며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식의 충전소, 세계로 나가는 창, 지혜의 보물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협의회 관계자 등은 충남도서관으로 이동해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 방안 등을 다시 한번 논의했다.

## “함께 만들어요, 미래도서관”..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코로나 19 도서관 가치 공유. 도서관 홍보영상 공모전도

[ 2021. 9. 1. 서울신문=김기중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 위원회)가 1일부터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와 ‘도서관 홍보영상 공모전’을 연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변화의 시기에 도서관의 가치를 공유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도서관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에서다. 도서관에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는 ‘메타버스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5인 이내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팀이 2개월 동안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 활동한다. 전문가 조언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한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은 도서관계 및 메타버스 분야의 국내 저명인사를 선임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발굴한 아이디어를 향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한 국가 도서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서관 홍보영상 공모전은 나만 알고 있거나 가까운 도서관의 장점을 영상으로 소개하면 된다. 만화·영상·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순수창작 등 영상 형식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5분 이내 분량이어야 한다.



주제는 ‘코로나 우울증을 독서로 극복한 경험’, ‘도서관에서 꿈을 키웠던 추억’, ‘슬기롭게 도서관 이용하는 법’, ‘우리 동네에 자랑하고 싶은 도서관’ 등 도서관의 가치를 새롭게 전달하고 도서관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해커톤 대회 및 홍보영상 공모전 참여 작품은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투표를 해 도서관위

원장상과 포상금을 준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에서 시상한다.

도서관위원회 측은 “해커톤 대회와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도서관 정책과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도서관위원회는 전국의 도서관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도서관, 통일 거점기관 역할 준비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토론회 ... 베를린주립도서관 재통합 사례 소개

[ 2021. 10. 1.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공공도서관이 향후 통일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북한 이해·통일 공감대 확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관련 도서관 정책을 수립, 공공도서관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북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을 주제로 '2021 도서관정책토론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주한독일문화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공공도서관 대상 통일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73개 공공도서관 중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를 보유한 곳은 82.1%로 나타났다. 관련 대출은 활발하지 않아 '가끔 대출' 53.5%, '거의 대출 없음' 45.8%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연 곳은 7개관으로 4.0%에 그쳤다.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39.2%, '기획하기 어려워서' 21.1% 순으로 답했다.

다만 앞으로 북한 자료 보유 의향을 질문한 결과 87.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향후 북한 통일 평화 관련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음'이 21.4%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사례들이 제시됐다.

파주시중앙도서관 사례, 마포중앙도서관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프로그램을 등이 소개됐다. 특히 2019년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의 '미리 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길 위의 인문학 사업)는 전문가와 협력해 기획, 프로그램의 구조가 튼튼하고 강사진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혔다.

공공도서관들이 통일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공공도서관의 노력은 도서관 정책 체계 내에서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도시와 도서관 규모의 편차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르틴 홀렌더 베를린주립도서관 이사회 연구위원이 독일 통일에 따른 베를린주립도서관의 재통합에 대해 설명했다.

베를린주립도서관은 1661년 설립, 분단으로 1940년대 말 둘로 분리됐으며 동서독의 통일과 함께 재통합됐다. 그에 따르면 이는 동서독의 통일에 관한 유명한 말인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된다"의 과정과 동일했다.

그는 "1989년 11월 국경 통과지점들이 개방되고 몇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도서관의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두 도서관의 부서장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면서 "사서들은 자신들의 도서관 발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두 관을 각각의 특징을 살려 전문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포츠담 거리의 도서관은 현대 연구도서관으로, 운터덴린덴 거리의 도서관은 역사 연구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 제 7 기 도서관위 정책세미나 열려

11 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2021. 11. 9.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7기 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세미나'를 연다.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복 교수(제7기 도서관위원회 전략 기획 소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윤희윤 교수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과 이현주 교수(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가 도서관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관은 '농인전문도서관 건립 방안'을 발표하며 조현양 교수(제7기 도서관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장)와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은 이에 관해 토론한다.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위원회 누리집(www.cl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로운 일상, 지속 가능한 도서관의 가치와 미래상

### 3일간(11.30~1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개최, 유튜브 및 메타버스 생중계

[ 2021. 11. 30. 데일리스포츠한국=이기운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서관위원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1월 30일(화)부터 12월 2일(목)까지 3일에 걸쳐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미래상을 국민과 함께 그려보고자 기획하였다. 도서관정책 우수사례 및 홍보영상 공모전(11.30),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12.1), 도서관 정책 포럼(12.2) 등 다양한 세부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개최 모습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town)'에 마련된 행사장에 사전 등록 후 방문해 행사를 즐길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국민과 함께 제시하는 도서관 정책의 성과와 미래상

첫째 날(11.30)은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9.1부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서관정책 우수사례와 도서관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홍보영상 분야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광화문1번가'의 대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의 우수사례, '전북 완주군'의 홍보영상에 대한 발표회가 진행된다.

두 번째 날(12.1)에 개최하는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는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6개팀이 2개월간 전문가 멘토링과 팀별 활동, '광화문 1번가' 대국민 투표를 거쳐 구체화한 도서관 정책 아이디어를 최종 발표하는 자리다. 청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진지한 고민이 반영된 도서관 정책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 ■ 새로운 일상의 시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일의 도서관'

셋째 날(12.2) 개최하는 '도서관 정책 포럼'은 '메타버스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2가지 주제의 세션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강연 형식으로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첫 번째 세션은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가 "메타버스,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규환 교수(인천대)와 권선영 교수(한남대)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새로운 일상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고, 강윤주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세션별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거쳐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된다. 질의는 현장 참여자는 물론이고 유튜브 시청자 역시 댓글 기능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 ■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 마련

도서관위원회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한마당'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

양지방정부 관계자, 현장사서, 대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올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을 매년 개최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큰 잔치’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의정부음악도서관 방문

[ 2021. 12. 9.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일 음악도서관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조현양 위원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의 지역 문화 자산인 블랙뮤직으로 공간을 디자인한 의정부음악도서관은 개관 이후 많은 시민들과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도서관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도 이날 의정부음악도서관을 방문했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 3층 뮤직홀에서 책 읽는 도시 의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서관의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음악도서관의 정체성이 표현된 뮤직스태이지를 둘러보며 음악도서관을 높이 평가했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책과 음악, 지역 문화를 담은 이 특별한 공간을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소통과 교류, 창작과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창의적인 공간을 체험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진화시킨 의정부시만의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의 도서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걸음 빠르게 움직여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이 음악도서관의 다양한 음악들과 공간의 체험으로 위로가 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의정부에 걸맞은 다양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

### 도서관위·국회포럼 세미나

[ 2021. 12. 15.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국회포럼)은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을 주제로 '제7기 도서관위원회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유튜브 '강득구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포럼 대표인 박 정 의원 인사말과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포럼 간사 강득구 의원, 한무경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열 예정이다.

기조강연자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과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발표한다.

## 콩쥐팥쥐도서관·다독다독에 놀러오세요

### 도서관위·문체부 '도서관한마당' ... 강동구·완주군·메타버스 미래도서관 아테네 최우수상

[ 2021. 12. 30.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콩쥐팥쥐도서관 홍보영상 중 한 장면. 사진 전북 완주군 제공

"전북 혁신도시 내 콩쥐팥쥐도서관이 개관 했지만 코로나19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 한마당 홍보영상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촬영했습니다. 영상 촬영이 처음이었는데 대본작성부터 소품준비 선곡 개사 등 모든 직원들이 척척 호흡을 맞춘 것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코미디 영화를 찍는 진짜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김은희 완주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도서관운영2팀장의 수상소감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 홍보영상 부문에서 전북 완주군은 콩쥐팥쥐도서관을 홍보하는 '콩쥐팥쥐 가족의 소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 콩쥐팥쥐도서관 영상, 유쾌한 직원들

완주군은 공공도서관 6개, 작은도서관 10개, 외부에 개방하는 학교마을도서관 5개를 갖추고 있다. 이 중 1곳이 완주군의 5번째 도서관인 콩쥐팥쥐도서관으로 전북 혁신도시 안에 위치한다. 2019년 말 개관한 콩쥐팥쥐도서관은 창의적 독서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해 '위라벨' 문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유쾌한 홍보영상은 콩쥐팥쥐도서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전북 혁신도시에 이사를 온 콩쥐팥쥐 가족이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콩쥐팥쥐도서관이 조성된 이후, 삶이 변화한다는 즐거이다. 직원들은 실제로 넘어지는 장면을 연기하는 등 열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콩쥐팥쥐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하게 독서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콩쥐팥쥐도서관은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독서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꼭 방문해달라"면서 "공무원으로 새로운 도전이었고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다독다독, 인근 가게 홍보·상품 전시도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사진 서울 강동구 제공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서울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多讀茶篤): 책과 차,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동구는 공간에 복지 개념을 담은 '강동형 공간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건축물은 복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강동형 공간복지의 대표 정책은 서재에 음료, 사랑방 기능을 더한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이다. 책을 읽고 빌리는 기능을 넘어서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을 지향하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특히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고분다리시장점은 상인과 고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큐레이션을 통해 인근 가게들을 홍보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또 구천면로점은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각 공간마다 주제별 색깔을 선보이는 것도 이색적이다. 구천면로점은 균형을 상징하는 에메랄드를, 고덕점은 평화를 상징하는 클래식블루를 내세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에서는 주민들이 행복감을 표현하는 메모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엔 집 근처에 다독다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는다"면서 "다독다독을 비롯해 명실상부 '책의 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독창적 검색에 대면 질의도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에서는 '메타버스 도서관에서 도서의 즐거움을 찾아 아테네'를 발표한 브라운 센세이션(Brown Sensation)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브라운 센세이션(김남호 박예찬 박진우 황민식)은 군 복무 중이거나 갓 제대한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아테네를 통해 도서관을 개인적, 수동적 공간에서 능동적, 집단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아테네에서 책을 고를 때에는 '모든 것을 보는 자'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가 추천하는 책을 만날 수 있다. '20대가 많이 읽는 책'과 같은 독창적 검색이 가능하며 화면 속 책을 눌러 세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독서 중 떠오른 생각들은 도서관 책상에 내장된 보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다른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으며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아고라에서는 대면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서로의 얼굴을 아바타로 바꿔 대면하는 부담을 줄였다. 아테네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AS(Athenae Space)에 기록된다. 읽은 책과 메모, 2차 창작물 등 계정을 가꿀 뿐 아니라 타인의 계정도 둘러볼 수 있다.

김남호씨는 "독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도서관이기에 할 수 있는 것 등에 집중해 구상했다"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잘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를 만든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 해단..12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편

[ 2022. 4. 5.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서관위원회)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7기 위촉직 위원 해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에는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2020년 4월 9일 출범한 제7기 도서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황희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제6기·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기남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해단식을 앞두고, 6기와 7기를 연임, 4년간 위원회를 이끌어온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대표 성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 도서관 발전정책에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에서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재정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유지된 점을 꼽았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도서관위원회가 국가 도서관정책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의 개편,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협의회’ 구성 등을 들었다.

도서관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 김현환 차관은 해단식에 참여하여 “코로나19 라는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도서관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환경 마련을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위원회의 성과와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 7 기 도서관위원회 해단식

###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도서관 발전 지혜 모아"

[ 2022. 4. 5.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가 제7기 위촉직 위원 임기 종료를 맞이해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촉직 위원 다수가 참석했다.

2020년 4월 출범한 제7기 도서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황 희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제6기·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도서관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 도서관 정책의 심의·조정과 시행동력 확보에 힘썼다.

최근 3년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서관 발전정책에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재정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유지되고 있다.

또 2차례에 걸친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로부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각 기관의 실적 평가 및 국회 결과 보고, 도서관 정책컨설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라는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도서관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위원회의 성과와 제안을 적극 수용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지치 않고 국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온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문화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도서관에 있는 만큼 6기·7기를 거쳐 발전해온 도서관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게 될 8기에 이르러서는 국가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며 더 크게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제 7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발행일** | 2022년 4월 8일

**발행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www.clip.go.kr](http://www.clip.go.kr)

**발행인** | 신기남 위원장

**감수** | 최유진 사무국장

**기획·편집** | 이용미

**집필** | 이용미, 김태경, 신설매, 윤희정, 이지원, 전주현, 현승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7층

**연락처** | 02-590-6243

**인쇄처** | (주)계문사(02-735-6867)

---

© 2022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http://www.clip.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